R475 / 2004. 12.

한·일 FTA 농업부문 파급영향 및 협상전략

최 세 균 선임연구위원
허 주 녕 전문연구원
이 재 현 교수(가고시마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최 세 균	선임연구위원	연구총괄
허 주 녕	전문연구원	자료분석 및 정리
이 재 현	가고시마대	품목별 경쟁력 분석

머 리 말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럽과 미주 양축은 보다 폐쇄적인 지역경제 블록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응하여 동아시아 국가들도 지역경제 블록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은 칠레와의 FTA 체결 이후에 일본,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본은 싱가포르, 멕시코 등과의 FTA 체결 이후 태국 등 아세안 국가들과의 FTA를 추진 중이며, 중국은 아세안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고, 한국과 일본의 FTA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일 FTA는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변화는 물론 정치, 외교 등 많은 부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한·일 FTA가 선진국 거대 경제권과의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한·칠레 FTA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특히 한·일 양국은 산업구조의 유사성 등으로 산업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예상되며, 한국의 일부 제조업부문과 일본의 농업부문 등이 협상에서 민감한 산업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일 농업부문 경쟁력 비교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일 양국의 주요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고 시장개방을 요청할 부분과 양허할 부분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결과가 FTA 협상 담당자, 농업인, 연구자 등 관계자들에게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2005.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요 약

이 연구는 한·일 FTA 협상에 대비하여 양국의 농산물 경쟁력, 교역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부문 협상전략 및 양허요청서와 양허제안서(Request/Offer)의 작성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농업 구조조정이 일본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일본 농업보다는 한국 농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이 일본에 비해 비교우위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한·일 양국의 농업구조 및 교역구조로 볼 때 교역 증대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의 경쟁력, 관세율, 농업구조조정의 차이 등으로 잠재교역 가능성이 큰 미곡, 채소, 돼지고기, 가공식품 등의 교역이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은 쌀을 비롯한 곡물류, 돼지고기 등 축산물, 채소, 과실 등 대부분의 농산물에 있어서 대일본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배, 사과, 일부 육류(부분육), 녹차, 담배 등에 있어서는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품목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곡은 양국 시장이 상호 개방될 경우 한국은 일본의 중산층 이하 계층과 외식업체 등을 대상으로 쌀 수출이 가능하고, 일본은 한국의 고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쌀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한·일 FTA로 인한 시장개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① 농산물 시장개방을 포함한 포괄적 협상, ② 일본의 고율관세 품목 위주로 교역 실적이 많은 것을 중심으로 한 양허 요청, ③ 비관세장벽 철폐 및 조화, ④ 농산물 수출 증대의 제약성 및 수입 증가 품목 고려, ⑤ 차액관세 및 종량세 철폐, ⑥ 잠재교역 규모가 큰 가공식품에 대한 양허 요청 등의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ABSTRACT

Evaluation of Korea-Japan FTA Negotiations for the Agricultural Sector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nformation and suggestions for the government to prepare negotiation strategies and offer lists as well as request lists of Korea-Japan FTA. This study consists of comparison of agricultural structural changes, trade structure, tariffs, and competitiveness between Korea and Japan. This study also classifies sensitive commodities for both Korea and Japa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impacts of FTA and competitiveness. Finally, suggestions and strategies for the Korea-Japan FTA negotiations are discussed.

Korea is evaluated to maintain and strengthen competitive edge against Japan thanks to favourable structural chang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Korea maintains solid price competitiveness for most of agricultural products except some items such as apples, pears, green tea, and special parts of meat.

Korea is suggested to stress the following issues in the negotiation; comprehensive approach including all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request wider market opening for the products with high tariffs and bigger trade volume, elimination or harmonization of nontariff barriers, consideration of sensitive commodities to Korea,

elimination of price difference duties and specific duties, market opening of processed food considering high tariffs and significant size of potential trade.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3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4

제 2장 한·일 농업구조 비교

1. 생산물 구성 비교 ····· 6
2. 농가의 성격 비교 ····· 13
3. 농업구조 변화로 본 교역 가능성 ····· 21

제3장 품목별 경쟁력 비교

1. 쌀의 한·일 경쟁력 비교 ····· 23
   1.1. 한·일 쌀 시장 개요 ····· 25
   1.2. 일반소비자세대의 쌀 구매가격 및 소비행태로 본 쌀 시장 ····· 31
   1.3. 수입쌀 품질 및 구입가격에 관한 소비자의식 ····· 41
   1.4. 쌀 생산비를 통해 본 경쟁력 ····· 43
   1.5. 쌀 수요자로서의 외식 및 쌀 가공업체 ····· 43
   1.6. 고찰 ····· 46
2. 녹차의 한·일 경쟁력 비교 ····· 50
   2.1. 한·일 녹차수급 및 생산의 개황 ····· 52

2.2. 녹차의 유통 ····· 59
2.3. 녹차의 가격 및 생산비 ····· 62
2.4. 녹차에 관한 국경조치 및 교역실적 ····· 66
2.5. 한·일 녹차교역에 관한 전망 ····· 72
3. 과실 및 축산물의 한·일 경쟁력 비교 ····· 76
3.1. 경쟁력 지수 비교 ····· 76
3.2. 교역 가능성 ····· 82

제4장 협상전략 ····· 87

참 고 문 헌 ····· 95

표 차 례

표 2-1. 한국의 농작물 재배면적 변화 ····· 8
표 2-2. 한국의 축산물 사육두수 변화 ····· 9
표 2-3. 일본의 농작물 재배면적 변화 ····· 12
표 2-4. 일본의 축산물 사육두수 변화 ····· 13
표 2-5. 한국의 경지규모별 농가호수 변화 ····· 14
표 2-6. 한국의 축종별 호당 사육두수 변화 ····· 15
표 2-7. 가축별 사육규모별 호수 ····· 16
표 2-8. 한국의 전・겸업농별 농가호수 변화 ····· 17
표 2-9. 한국의 연령별 농가인구 변화 ····· 18
표 2-10. 일본의 경지규모별 농가호수 변화 ····· 19
표 2-11. 일본의 축종별, 규모별 사육두수 변화 ····· 20
표 2-12. 일본의 전・겸업농별 농가호수 변화 ····· 21
표 2-13. 일본의 연령별 농가인구 변화 ····· 21
표 3-1. 산지/품종별로 본 일본 쌀 가격 ····· 34
표 3-2. 일본의 소비자가 쌀을 주로 구입하는 방법 ····· 39
표 3-3. 수입쌀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 ····· 42
표 3-4. 외식업체의 쌀 구입 기준 ····· 45
표 3-5. 외식업체가 사용하는 식재가 국산인지 수입인지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도 ····· 46
표 3-6. 일본의 주요 녹차산지의 생산조건 비교 ····· 57
표 3-7. 우리나라 녹차 산지의 현황 ····· 58
표 3-8. 우리나라 녹차 제품가격 ····· 64
표 3-9. 일본의 소비자가 주로 구입하는 녹차 가격대 ····· 64

표 3-10. 우리나라와 일본 녹차(생엽) 직접생산비의 비교 ····· 66
표 3-11. 녹차 수출입국별 수출(수입)량 및 수출(수입)가격 (2003년) ·· 70
표 3-12. 일본의 대 한국 녹차 수출의 현황(2001년) ····· 71
표 3-13. 과실류의 경쟁력 및 교역 가능성 ····· 84
표 3-14. 축산물의 경쟁력 및 교역 가능성 ····· 86

그 림 차 례

그림 3-1. 한국과 일본의 쌀 수급추이 ····· 26
그림 3-2. 한국과 일본의 쌀 가격 비교 ····· 28
그림 3-3. 일본의 쌀 유통과정 ····· 31
그림 3-4. 한국 및 일본의 쌀 상품별 소비자구입가격 비교 ····· 33
그림 3-5. 일본의 소비자가 주로 구입하는 쌀 가격대 ····· 37
그림 3-6. 1인 1일당 쌀 소비량의 추이(일본) ····· 40
그림 3-7. 일본의 녹차 수급추이 ····· 53
그림 3-8. 일본의 음료별 소비량 변화 추이 ····· 54
그림 3-9. 우리나라 녹차 생산의 추이 ····· 55
그림 3-10. 일본의 녹차유통경로(시즈오카 시장을 중심으로) ···· 61
그림 3-11. 우리나라 녹차 수출입 추이 ····· 69
그림 3-12. 한국의 과실류 RCA 지수 변화 ····· 78
그림 3-13. 일본의 과실류 RCA 지수 변화 ····· 79
그림 3-14. 한국의 축산물 RCA 지수 변화 ····· 80
그림 3-15. 일본의 축산물 RCA 지수 변화 ····· 80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세계무역기구(WTO)가 범세계적 시장개방을 위해 추진중인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은 칸쿤 각료회의 결렬로 지연되고 있으며, 다자간 협상의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간 협상의 불확실성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지역주의 경향은 강화되고 있다. 지역주의 경향은 유럽과 미주대륙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러한 지역주의에 대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동남아시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역주의 경향은 유럽과 미주대륙 못지않은 힘을 발휘할 전망이다.

동아시아를 하나로 묶는 FTA는 앞으로 유럽 28개국으로 확대될

EU와 북중남미 34개국이 형성하게 될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에 필적하는 거대한 경제권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중국, 일본, ASEAN 등 네 개의 중심축에 의해 선도되고 있다. 한국은 칠레와의 FTA 체결이후 일본 및 싱가포르와 FTA 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ASEAN과의 협상도 빠른 시일내에 시작할 것이다. 일본은 싱가포르 및 멕시코와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한국 및 ASEAN 국가(태국, 말레이시아 등)와의 FTA 협상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ASEAN과의 협상을 진행중이며 2010년까지 이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동아시아지역에서 한·중·일 3국의 FTA가 언제 완료될 것인가 하는 문제 정도가 남게 된다.

특히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양국 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협상 타결 시기와 내용 등은 앞으로 형성될 동아시아 전체의 FTA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FTA는 양국의 산업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일본은 농업부문에 피해가 예상되며, 한국은 기계, 전자, 철강 등 제조업 분야에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한국은 부품 및 소재 산업에 대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대중국 투자와 생산설비 이전 등으로 생산과 고용이 부진한 중소기업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부문별로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농업부문의 협상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수행되었다. 일본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순수입국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한국의 농산물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예상되고 있다. 한·일 FTA 체결은 양국의 지리적 근접성과 동식물검역에 의한 수입금지 농산물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농업부문 전반에 큰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제적 측면 이외에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한·일 FTA 추진에 따른 파급 효과에 대하여는 이미 연구된 부분도 있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으나 양국 정부간 공식협상이 시작된 시점에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한·일 FTA 추진에 있어 시장개방 요청 분야와 양허 분야에 대한 틀을 마련하고 부문별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한·일 양국의 농업부문 경쟁력을 비교하고 그에 따른 협상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FTA 체결로 인한 농산물 교역 증가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산물 교역은 앞으로 체결될 FTA에 의해 관세가 철폐될 경우 순수한 경쟁력 차이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경쟁력은 현재의 가격과 품질 등 이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양국의 농업구조조정 방향에 의해 차이가 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한·일 농업구조를 분석하여 앞으로 양국의 농업부문에서의 경쟁력 방향을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민감품목으로 분류되는 것 가운데 경쟁력 차이를 비교하기 어려운 쌀, 과일, 낙농품, 녹차 등 네 품목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부문의 협상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 방법으로 먼저 농업구조 및 농산물 무역 관련 통계자료 분석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한·일 양국의 관세율표를 바탕으로 실행관세율을 정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자료와 더불어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미 연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의미하는 바를 선택적으로 요약하여 인용하였다. 선행연구와 통계자료 등을 통한 분석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본 및 한국의 현지조사와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보완하였다.

연구 범위에 있어서 분석 대상 품목은 농업구조 분석에 있어서는 농산물 전체를 포괄하였으나 품목별 경쟁력 분석은 가격차 등 경쟁력 지표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네 품목으로 국한하였다. 협상 전략은 연구 내용과 별도로 문헌 조사, 전문가 면담, 선행연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제 2장

한·일 농업구조 비교

농업구조는 나라마다 경제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변화의 속도 또한 다르다. 한·일 양국의 농업구조 변화는 향후 양국의 농산물 교역구조와 교역량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한·일 양국의 농업구조를 비교하고 농업구조의 변화가 농산물 교역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농업구조란 농업의 생산물 구성과 생산 주체의 구성을 지칭하며, 농업구조 변화란 생산물과 생산주체의 성격과 구성의 변화를 말한다. 농업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생산물 구성의 변화, 노동력의 부문간 배분, 농지의 유동성 등이 여건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이정환 1998, p18). 곡물, 채소, 과실, 축산물 등 농산물 생산의 구성은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농업 경영체의 성격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먼저 비교하고자 한다.

1. 생산물 구성 비교

한국의 농업 여건은 토지가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자본과 기술이 풍부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 절약적, 자본 집약적 농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재배업 가운데 곡물보다는 채소와 과실이 유리하고 축산업 가운데는 대가축보다는 소가축이 유리하다. 작물 재배면적과 가축 사육두수로 본 한국의 농업구조는 이러한 패턴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개방이 가속화된 1995년 이후에는 농업생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농작물 재배는 곡물 위주에서 채소와 과실로 전환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식부면적은 1990～2002년 기간에 241만ha에서 202만ha로 16% 감소하여 경지면적 감소율(11.7%)보다 감소폭이 컸다. 경지면적도 감소하고 있지만 경지 이용률은 더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곡물 재배면적은 1990년 167만ha에서 2002년 130만ha로 30% 가까이 감소하였으나 채소류와 과실류 재배 면적은 각각 7%와 20% 증가하여 곡물 위주의 농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채소와 과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재배면적에서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69%에서 2002년 64%로 감소한 반면, 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13%에서 17%로, 과실이 차지하는 비중은 6%에서 8%로 각각 증가하였다.

곡물 가운데 특히 재배면적 감소가 크게 나타난 것은 맥류와 콩으로 1990～2002년 기간에 50% 가까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UR 협상에 의해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에서 유일하게 예외를 인정받은 미곡의 재배면적은 1995년 106만ha에서 2000년 107만ha로 오히려 증

가하는 등 큰 변화가 없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채소류 가운데 재배면적 증가가 두드러지는 품목은 최근 유리온실 등의 보급으로 재배가 증가한 시설채소를 비롯하여 양파 등이 있다. 과실류의 재배면적 증가 현상은 사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타나나고 있다. 배 재배면적은 1990년 9천ha에서 2002년 2만 5천ha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밖에 복숭아, 포도, 감귤 등의 재배면적도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다른 과수에 비해 공급이 많아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사과의 재배면적은 1990년 4만 9천ha에서 2002년 2만 6천ha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5년 이후에는 채소와 과실류의 재배면적도 감소하여 재배업은 UR 이후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2-1. 한국의 농작물 재배면적 변화

단위 : 천ha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2년	증가율,% ('90-'02)
전체 재배면적	2,409(100.0)	2,197	2,098	2,020(100.0)	-16.1
식량작물	1,669(69.3)	1,347	1,317	1,299(64.3)	-22.2
- 미 곡	1,244(51.6)	1,056	1,072	1,053(52.1)	-15.4
- 맥 류	160(6.6)	90	68	81(4.0)	-49.4
- 콩	188(7.8)	133	107	99(4.9)	-47.3
- 기 타	77(3.2)	68	70	66(3.3)	-14.3
채 소	311(12.9)	403	386	334(16.5)	7.4
- 고 추	63(2.6)	87	74	72(3.6)	14.3
- 마 늘	44(1.8)	40	45	33(1.6)	-25.0
- 양 파	8(0.3)	16	17	15(0.7)	87.5
- 시설채소	35(1.5)	82	91	83(4.1)	137.1
- 기 타	161(6.7)	178	159	131(6.5)	-18.6
과 실	132(5.5)	174	173	166(8.2)	25.8
- 사 과	49(2.0)	50	29	26(1.3)	-46.9
- 배	9(0.4)	16	26	25(1.2)	177.8
- 포 도	15(0.6)	26	29	26(1.3)	73.3
- 복숭아	12(0.5)	10	14	16(0.8)	33.3
- 감 귤	19(0.8)	24	27	26(1.3)	36.8
- 기 타	28(1.2)	48	48	47(2.3)	67.9
뽕밭 등	297(12.3)	273	222	221(10.9)	-25.6

주 : ( )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3.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각 연도.

축산업은 한우 사육두수의 급격한 감소와 중소가축(돼지, 닭 등)의 사육두수 증가 등 급속한 구조조정 과정을 겪고 있다. 한국의 주요 가축 사육두수는 2002년 1억 1,262만두로 1990년에 비해 40%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육두수의 증가는 주로 돼지, 닭 등 소가축의 사육

증가에 기인한다. 돼지 사육두수는 1990～2002년 기간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닭 사육 수수도 37%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한우 사육두수는 1995년 260만두에서 2002년 140만두로 46%나 감소하였다. 젖소 사육두수는 50～55만두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으나 1990～2002년 기간에 8% 정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토지자원이 자본과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에 있어서 대가축보다 중소가축 사육이 유리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젖소 사육두수는 증가하였으나 한우 사육두수가 급감한 것은 관세에 의한 시장개방이라는 충격은 동일하였으나 관세율의 차이와 상품의 교역 가능성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WTO 양허관세(2004년)의 경우 쇠고기는 40%이며 분유는 176%이다. 또한 낙농제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음용유(시유)는 국제 교역의 가능성이 낮다.

표 2-2. 한국의 축산물 사육두수 변화

단위 : 천두, 천수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2년	증가율,% ('90-'02)
사육두수	81,117(100.0)	95,408	112,895	112,621(100.0)	39.6
한 우	1,622(2.0)	2,594	1,590	1,410(1.3)	-13.0
젖 소	504(0.6)	553	544	544(0.5)	7.9
돼 지	4,528(5.6)	6,461	8,214	8,974(8.0)	98.2
닭	74,463(91.8)	85,800	102,547	101,693(90.2)	36.6

주 : ( )는 구성비를 나타냄, %.
자료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3.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각 연도.

일본의 농업 여건은 토지가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자본과 기술이

풍부한 형태로 한국과 비슷하다. 한국과 일본의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각각 1.4ha, 1.6ha이며, 호당 경지면적이 1ha 미만인 영세농의 비중은 각각 62%와 58%로 영농규모가 서로 유사하다. 반면 자본 투입량은 많아 호당 경운기나 트랙터 보유대수는 한국이 0.83대, 일본이 1.0대이며, 농업취업자 1인당 자본투입액인 자본장비율은 한국이 8,500달러, 일본이 9,400달러로 중국(359달러)에 비해 20배 이상 높다(어명근 외, 2003).

그러나 농작물 구성으로 본 일본의 농업구조 조정은 토지 절약적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본의 작물 재배면적은 1990~2002년 기간에 9% 감소하는 데에 그쳤으나(한국은 16% 감소) 농작물 재배면적 감소는 곡물은 물론 채소와 과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 특히, 과실류 재배면적은 1990~2002년 기간에 22.3% 감소하여 곡물 재배면적 감소율 20%와 채소 재배면적 감소율 16.5%를 앞질렀다. 뽕밭과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제외한 곡물, 채소, 과실의 구성비는 1990~2002년 기간에 각각 74%, 17%, 9%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다. 따라서 농업 구조 조정 가운데 작목 구성비의 변화에 있어서 소득 탄력적 작목으로의 전환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곡물류 가운데 재배면적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품목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보리와 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품목은 1990~2002년 기간에 25% 이상 감소하였다(한국은 50% 감소). 벼 재배면적은 1990년에 207만ha로 전체 작물 재배면적의 40%에 달하였으나 2002년에는 169만ha(전체의 35%)로 감소하여 지난 10여년 간 40만ha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류 가운데 재배면적 감소현상이 현저한 품목은 근채류와 과채류이다. 토마토, 오이, 가지 등 과채류 재배면적은 25% 이상 감소하였다. 과실류 가운데에서는 감귤과 포도의 재배면적이 각각 24%와 17%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율

을 나타냈다. 그러나 쌀 생산량 감축을 위해 휴경을 권장하고 있는 논을 중심으로 사료작물 재배가 장려됨에 따라 사료작물을 비롯한 기타 작물의 재배면적은 점차 증가하여 170만ha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

일본은 축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한국과 다른 형태를 나타나고 있다. 전체 가축 사육두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감소폭은 1990~2002 기간에 4.4%에 달하였다. 육우 사육두수는 오히려 5% 증가하여 1990년 270만두에서 2002년 284만두가 되었다. 그러나 젖소, 돼지, 닭 등 기타 가축 사육두수는 크게 감소하였다. 돼지는 1,182만두에서 879만두로 26% 감소하였으며 젖소는 206만두에서 173만두로 16% 감소하였다. 닭 사육 수수도 3% 감소하였다. 한국이 돼지, 닭 등 중소가축을 중심으로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있음에 비해 일본은 중소가축 사육두수가 대가축보다 크게 감소하고 있다.

표 2-3. 일본의 농작물 재배면적 변화

단위 : 천 ha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2년	증가율,% ('90-'02)
전체 재배면적	5,243(100.0)	5,038	4,830	4,762(100.0)	-9.2
식량작물	2,791(53.2)	2,603	2,340	2,234(46.9)	-20.0
- 미 곡	2,074(39.6)	2,118	1,770	1,688(35.4)	-18.6
- 맥 류	369(7.0)	257	297	272(5.7)	-26.3
- 콩	257(4.9)	156	192	192(4.0)	-25.3
- 기 타	91(1.7)	72	81	82(1.7)	-9.9
채 소	647(12.3)	588	540	540(11.3)	-16.5
- 근채류	84(1.6)	78	68	63(1.3)	-25.0
- 엽채류	119(2.3)	114	107	103(2.2)	-13.4
- 조미채소	53(1.0)	52	52	49(1.0)	-7.5
- 과채류	102(1.9)	90	80	76(1.6)	-25.5
- 기 타	289(5.5)	254	233	249(5.2)	-13.8
- 과 실	346(6.6)	315	286	269(5.6)	-22.3
- 사 과	50(1.0)	48	44	43(0.9)	-14.0
- 배	18(0.3)	18	17	16(0.3)	-11.1
- 포 도	24(0.5)	23	20	20(0.4)	-16.7
- 감	26(0.5)	26	25	25(0.5)	-3.8
- 감 귤	74(1.4)	65	58	56(1.2)	-24.3
- 기 타	154(2.9)	135	122	109(2.3)	-29.2
뽕밭 등	1,459(27.8)	1,532	1,664	1,719(36.1)	17.8

주 : ( )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통계」, 각 연도.

일본 농림수산성, 「경지 및 식부면적통계」, 2002.

표 2-4. 일본의 축산물 사육두수 변화

단위 : 천 두, 천 수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2년	증가율, % ('90-'02)
전 체	203,989(100.0)	209,020	201,775	195,100(100.0)	-4.4
육 우	2,702(1.3)	2,965	2,823	2,838(1.5)	5.0
젖 소	2,058(1.0)	1,951	1,764	1,726(0.9)	-16.1
돼 지	11,817(5.8)	10,250	9,806	8,790(4.5)	-25.6
닭	187,412(91.9)	193,854	187,382	181,746(93.1)	-3.0

주 : ( )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통계」, 각 연도.

2. 농가의 성격 비교

주어진 가격과 기술 조건 아래에서도 생산주체의 성격에 따라 생산성은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이 정환, 1998). 생산주체의 규모, 소유권, 경영자의 연령 등 생산주체의 성격이 생산성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요소(특히 농업에 있어서는 토지)의 소유권에 따른(자작농, 임차농 등) 생산성 차이 문제는 최근 의미가 크게 감소하였다(최근의 농지 임대차 방식은 예전의 소작제도와 달리 임차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일부에서는 임차자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변형되었음). 따라서 여기서는 영농주체의 성격을 규모, 연령 그리고 영농형태(전업농 또는 겸업농 등)로 나누어 비교하고자 한다.

한국의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1990년 1.19ha에서 2002년 1.45로 0.26ha(약 800평)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러한 평균적인 규모

화의 부진 속에서도 3ha 이상의 대농 출현은 크게 증가하여 1990~2002년 기간에 3ha 이상의 농가는 77%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3ha 이상의 대농이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에서 6.1%로 증가하였다. 영세농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에 58%에서 61%로 증가하였으나, 중농은 38%에서 32%로 감소하여 영세농과 대농으로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표 2-5. 한국의 경지규모별 농가호수 변화

단위 : 천 호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2년	증가율, % ('90-'02)
농가호수	1,767(100.0)	1,501	1,383	1,280(100.0)	-27.6
1.0ha 이하	1,027(58.1)	865	819	777(60.7)	-24.3
1.0~3.0ha	672(38.0)	541	465	405(31.6)	-39.7
3.0ha 이상	44(2.5)	70	85	78(6.1)	77.3
기타(경종 외)	24(1.4)	25	14	20(1.6)	-16.7

주 : ( )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3.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각 연도.

축산업의 규모화도 진전되고 있다. 1990~2002년 기간의 호당 사육두수 변화를 보면, 대가축인 육우와 젖소는 각각 3두, 15두에서 7두, 45두로 증가하였으며, 돼지의 규모화는 더욱 급속히 진행되어 34두에서 528두로 증가하였다. 닭의 호당 사육수수는 463수에서 578수로 증가하는 데에 그쳐 규모화가 가장 느리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현상은 토종닭 등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 때문이다. 육계만을 고려하면 호당 사육수수는 1990년 7,348수에서 2002년

22,768수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호당 육계 사육수수는 1990년 일본의 50%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 73%로 차이가 좁혀졌다.

50두 이상 대규모로 육우 또는 유우를 사육하는 농가의 비중은 1990~2002년 기간에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유우의 경우 50두 이상 사육농가의 비중은 전체 유우 사육농가의 40%에 가깝다. 50두 이상의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는 전체의 2% 수준이다. 돼지 사육농가 가운데 1,000두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의 비중은 1990년 0.3%에서 2002년 17%로 증가하였다. 육계는 5만수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의 비중이 1990년 0.3%에서 2002년 12.1%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3만수 미만의 사육농가 비중은 1990년 98%에서 2002년 65%로 낮아져 육계의 규모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한국의 축종별 호당 사육두수 변화

	1990년		1995년		2000년		2002년	
	사육두수 (1,000)	호당 사육두수 (두/호)	사육두수 (1,000)	호당 사육두수 (두/호)	사육두수 (1,000)	호당 사육두수 (두/호)	사육두수 (1,000)	호당 사육두수 (두/호)
젖소	504	15	553	23	544	42	544	45
육우	1,622	3	2,594	5	1,590	5	1,410	7
돼지	4,528	34	6,461	140	8,214	342	8,974	528
육계	24,050	7,348	35,126	12,222	46,893	20,758	54,188	22,768

자료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각 연도.

표 2-7. 가축별 사육규모별 호수

단위:1,000호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2년
한(육)우	계	620 (100.0)	519	290	212 (100.0)
	20두 미만	615 (99.2)	498	274	197 (92.9)
	20～49두	5 (0.7)	18	11	10.8 (5.1)
	50두 이상	1 (0.2)	2	4	4 (2.0)
젖소	계	33.3 (100.0)	23.5	13.3	11.7 (100.0)
	10두 미만	12.9 (38.7)	3.5	0.8	0.7 (6.0)
	10～49두	19.7 (59.2)	18.7	8.8	6.5 (55.6)
	50두 이상	0.7 (2.1)	1.3 5.53	3.7 27.82	4.5 (38.5)
돼지	계	133.0 (100.0)	45.9	23.8	17.4 (100.0)
	100두 미만	125.0 (94.0)	34.1	13.9	8.9 (51.1)
	100～999두	8.4 (6.3)	10.6	7.6	5.6 (32.1)
	1,000두 이상	0.4 (0.3)	1.1	2.3	2.9 (16.9)
육계 (단위: 호)	계	3,273 (100.0)	2,874	2,259	2,380 (100.0)
	30,000수 미만	3,222 (98.4)	2,560	1,620	1,561 (65.6)
	30,000～50,000수 미만	43 (1.3)	256	439	532 (22.4)
	50,000수 이상	9 (0.3)	59	199	287 (12.1)

* ( )안은 구성비를 나타냄(%).

한국의 농가 호수는 1990년 177만호에서 2002년 128만호로 28% 감소하였다. 전업농가는 같은 기간에 105만호에서 86만호로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전체 농가수의 감소폭보다 적은 18%에 머물렀다. 반면 겸업농가는 이 기간에 72만호에서 42만호로 42%나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농가 가운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전업농의 비중은 1990～2002년 기간에 60%에서 67%로 증가하였다.

표 2-8. 한국의 전·겸업농별 농가호수 변화

단위 : 천 호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2년	증가율, % ('90-'02)
농가호수	1,767(100.0)	1,501	1,383	1,280(100.0)	-27.6
전업	1,052(59.5)	849	902	862(67.3)	-18.1
겸업	715(40.5)	652	481	418(32.7)	-41.5

주 : ( )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3.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각 연도.

농가인구는 1990년 666만명에서 2002년 359만명으로 46% 감소하였다. 농가인구 감소는 젊은 층으로 갈수록 그 폭이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990～2002년 기간에 농가인구 감소율은 14세 이하 72%, 14～49세 58%, 50대 47%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60세 이상의 인구는 오히려 119만 명에서 137만 명으로 16%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농가인구에서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8%에서 38%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농업 생산성 향상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청장년층(15～49세) 인력은 299만명에서 125만명으로 감소하여 농가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에서 35%로 낮아졌다.

한국 농업은 전업농 증가와 규모화의 진전이라는 생산성 증대 요인과 함께 농업 노동력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 요인이 병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령 인구의 원활한 탈농과 소수 정예 농업 노동력의 확보가 구조조정의 핵심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표 2-9. 한국의 연령별 농가인구 변화

단위 : 천명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2년	증가율, % ('90-'02)
농가인구	6,661(100.0)	4,851	4,031	3,591(100.0)	-46.1
14세 이하	1,370(20.6)	680	459	384(10.7)	-72.0
15~49세	2,993(44.9)	2,049	1,563	1,245(34.7)	-58.4
50~59세	1,111(16.7)	867	676	590(16.4)	-46.9
60세 이상	1,187(17.8)	1,255	1,333	1,372(38.2)	15.6

주 : ( )는 구성비를 나타냄.
자료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3.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각 연도.

일본의 호당 경지면적은 1990년 1.37ha에서 2002년 1.57로 0.2ha (약 600평) 증가하는데 그쳐 한국보다 규모화의 진전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3ha 이상의 대농이 차지하는 비중은 6.5%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1990~2002년 기간의 증가율은 한국의 77%에 비해 매우 낮은 2.1%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와 같은 대농과 영세농으로의 양극화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영농의 규모화 측면에서는 한국이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0. 일본의 경지규모별 농가호수 변화

단위 : 천 호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2년	증가율, % ('90-'02)
농가호수	3,834(100.0)	3,444	3,121	3,027(100.0)	-21.0
1.0 미만	1,762(46.0)	1,565	1,364	1,305(43.1)	-25.9
1.0~3.0	1,016(26.5)	892	781	747(24.7)	-26.5
3.0 이상	192(5.0)	195	193	196(6.5)	2.1
기타	864(22.5)	792	783	779(25.7)	-9.8

주 : ( )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통계」, 각 연도.

축산업의 규모화는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사육규모 차이가 가장 작은 유우의 경우 2002년 호당 사육두수는 일본이 56두로 한국(45두)보다 많다. 육우의 호당 사육규모는 일본 27두, 한국 7두로 유우보다 차이가 크다. 돼지와 육계의 호당 사육규모는 일본이 각각 961두와 3만수로 한국에 비해 돼지는 80%, 육계는 30% 이상 크다.

표 2-11. 일본의 축종별, 규모별 사육두수 변화

단위: 천두(천수), 두(수)/호

	1991년		1995년		2000년		2002년	
	사육두수	호당 사육두수	사육두수	호당 사육두수	사육두수	호당 사육두수	사육두수	호당 사육두수
젖소	2,068	35	1,951	44	1,764	53	1,726	56
육우	2,805	13	2,965	17	2,823	24	2,838	27
돼지	11,335	315	10,250	545	9,806	838	9,612	961
닭	188,786 (139,298)	13,792	193,854 (146,630)	20,059	187,382 (140,365)	28,704	181,746 (137,718)	30,401

주 1) 사육두수 중 ( ) 내는 6개월 이상의 성계 암컷 닭의 수임.
2) 농가수 중 ( ) 내는 종계만의 사육자를 제외한 채란계 사육자의 수임.
3) 농가수에서 닭의 경우 1991~97년은 성계 암컷 300수미만의 사육자 제외, 1998년 이후는 성계 암컷 1,000수미만의 사육자 제외, 1998년부터 성계 암컷 1,000수 이상의 사육자를 조사대상으로 한 수치임.
4) 닭의 호당 사육수는 성계 암컷 사육수(=성계 암컷/채란계 농가수)임.
자료 : 일본 農林水産省 統計情報部,「畜産統計」각 연도.

겸업농이 감소하고 전업농이 증가하는 현상은 한국과 일본에서 다같이 나타나고 있으나 한국이 일본에 비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농가인구는 1990~2002년 기간에 43% 감소하여 감소율은 한국의 46%와 비슷하다. 농가인구 감소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14세 이하 57%, 15~49세 47%, 50대 47%, 60세 이상 26% 등이다. 한국과 비교해 차이가 나는 점은 일본의 경우 60세 이상의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60세 이상의 농가인구 비중은 한국과 일본이 각각 38%와 37%로 비슷하나, 일본은 50대의 인구 비중이 13%로 한국의 16%에 비해 낮고 청장년층과 어린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농가인구 구조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유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12. 일본의 전·겸업농별 농가호수 변화

단위 : 천 호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2년	증가율, % ('90-'02)
농가호수	3,834(100.0)	3,444	3,121	3,027(100.0)	-21.0
전업	473(12.3)	428	426	439(14.5)	-7.2
겸업	2,497(65.1)	2,224	1,912	1,809(59.8)	-27.6
기타	864(22.5)	792	783	779(25.7)	-9.8

주 : ( )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통계」, 각 연도.

표 2-13. 일본의 연령별 농가인구 변화

단위 : 천 명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2년	증가율, % ('90-'02)
농가인구	17,296(100.0)	15,084	13,458	9,897(100.0)	-42.8
14세 이하	2,988(17.3)	2,205	1,729	1,281(12.9)	-57.1
15~49세	6,907(39.9)	6,033	5,216	3,657(37.0)	-47.1
50~59세	2,478(14.3)	1,861	1,710	1,315(13.3)	-46.9
60세 이상	4,923(28.5)	4,984	4,803	3,644(36.8)	-26.0

주 : ( )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통계」, 각 연도.

3. 농업구조 변화로 본 교역 가능성

일본과 한국의 농업성장은 개발도상국과 달과 달리 생산요소의 투입량이나 기술 등 공급측 요인보다 수요측 요인에 의해 제한되는 측면이 강하다. 수요의 소득탄성치가 큰 작물을 재배하거나 수출 가

능한 비교우위 품목을 재배하지 않으면 농업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이 정환 1998, p13). 경제성장에 따라 채소와 과실의 소득탄성치는 곡물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수출가능성과 비교우위 측면에서 볼 때에도 토지자원이 자본과 기술보다 상대적으로 빈약한 한국과 일본은 곡물보다는 채소와 과실이 유리하고 대가축보다 중소가축이 유리하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본 농업보다는 한국 농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이 일본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농작물 재배면적과 가축 사육두수의 변화를 고려할 때 한·일 양국의 교역 증대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농업 내부에서 양국의 호혜적 산업내 무역보다는 한국의 대일본 수출 증대에 따른 교역 증대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일 양국에서 자급률이 매우 낮은 콩, 보리, 옥수수 등 곡물류의 교역 증대 가능성은 낮으나 양국이 다같이 과잉 생산 상태에 있는 쌀의 산업내 교역 증가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채소와 과실류 재배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본은 이들 품목의 재배가 감소하고 있는 점은 한국의 수출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쇠고기의 경우 일본의 육우 사육두수 증가, 한국 쇠고기의 낮은 자급률 및 자급률 하락 등을 고려할 때 대일본 수출 증대 가능성은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비해 낮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의 농업 여건상 대가축보다 중소가축에 비교우위가 있으며, 일본내의 돼지고기와 닭고기 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점과 한국의 이들 품목에 대한 사육두수 증가 및 높은 자급률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일본 수출 증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부문에서 한국의 대일본 비교우위는 한국의 농업 구조조정이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점차 강화될 전망이다.

제3장

품목별 경쟁력 비교

1. 쌀의 한·일 경쟁력 비교

한·일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양국의 쌀 교역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종래 이와 같은 분석은 과거의 교역실적과 품목별 비용 및 가격비교를 통하여 장래의 교역에 있어서의 우열을 가늠하는 연구에 머물러 있었다. 그밖에도 수입쌀의 구입의사를 소비자 의식조사를 통해, 또는 패널리스트의 시식 등을 통해 파악한 연구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쌀은 그간 교역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국이 여타의 쌀 수출국들에 비해 매우 높은 미가를 유지하고 있는 탓에 교역 가능성을 배제하여 왔다. 그런 만큼, 일본의 쌀 시장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 특히 본 연구가 취급하고 있는 쌀 시장의 세분화 실태, 쌀 유통업체와 외식업체의 쌀 수요 동향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격 및 품질 경쟁력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선행연구의 성과에 의존하면서, 일본의 쌀 시장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정리하는 목적에서 아래와 같은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첫째, 양국의 쌀 가격을 소비자가격 특히 점포에 진열되는 많은 쌀의 실제가격을 통해 비교·분석해 보았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쌀 상품의 종류와 그 가격이 매우 다양하다. 쌀 가격을 하나의 지표로 파악하여 장래의 쌀 교역의 동향에 관해 논하는 것은 비현실적 측면이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양국 소비자들의 쌀 구매패턴을 살핀 후 가격대와 품질을 고려하였을 때, 양국의 쌀이 서로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장을 파악해 보았다.

둘째, 외식업체와 밥 가공업체들의 동향에 주목하였다. 양국의 쌀 소비의 내용을 보면, 가정에서의 식사 빈도는 현격히 감소하고 있어 쌀 수요의 많은 부분을 외식산업과 밥 가공업체가 점하고 있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외식업체와 밥 제조업체가 구입하는 쌀의 양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일본의 경우 1인당 쌀 소비량의 53%가 가계 밖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조사결과[1]를 통해 추정한다면 쌀의 반 이상이 이들 외식업체와 밥 제조업체에 의해 구입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 이다. 따라서 한정된 자료이기는 하나 외식업체와 밥 가공업체가 구입하는 쌀의 가격대, 쌀 구입 시의 고려조건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 농협을 포함한 쌀 유통업체들의 동향이 쌀 시장의 구조재편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일본은 쌀에 관한 규제완화가 급진전되는 과정에서 유통과정에 신규로 참여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 쌀 도매업체들이 일본 굴지의 종합상사와 연계

---

1 일본 농림수산성 총합식료국의 추계결과에 의함(2002년).

되고 있다. 대규모 쌀 도매업체와 연계되어 있는 이들 종합상사들은 도매업체들이 원하는 산지의 쌀 확보와 생산자의 조직화에 까지 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 생산지 개척에도 이미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2]. 또한 이들 종합상사는 국제 곡물시장에서의 풍부한 교역실적을 가지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쌀의 수출 또는 일본쌀의 수입은 종합상사의 거래선 확보전략 속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1.1. 한・일 쌀 시장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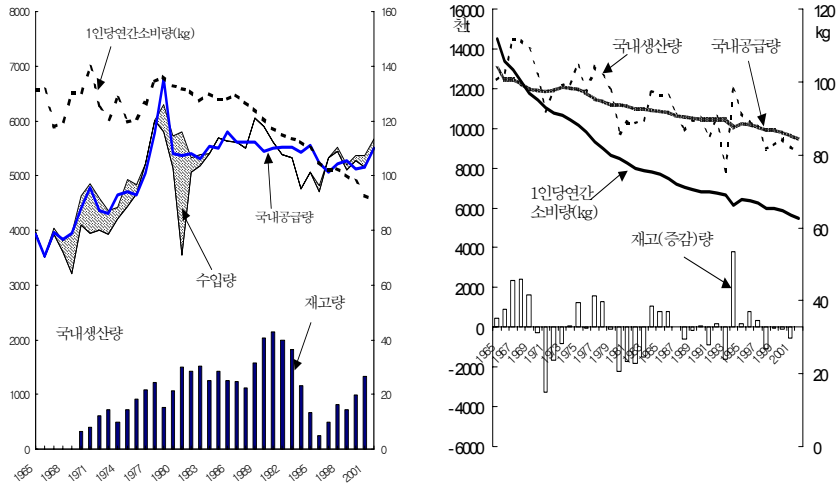
1.1.1. 수급추이

식품수급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쌀 수급추이를 파악하였다<그림 3-1>.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쌀 생산량은 550만톤 수준을 유지하며 과잉과 부족을 반복해 왔으나 1990년대 중반의 급격한 생산량 감소를 일시적으로 보인 후, 근년에는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쌀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8년 100kg를 하회한 이후 현재는 91kg으로까지 급속하게 감소함에 따라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고량(130만t)이 누적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쌀의 생산량증가에 반한 소비량의 급격한 감소에 더해 쌀 수입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후 우리나라의 쌀 수급은 과잉상태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생산조정이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

2 일본의 쌀유통업계의 최근의 동향에 관해서는 冬木勝仁《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下のコメビジネス》日本経済評論社、2003、ｐｐ206-214 및 坂下昭彦・朴紅「中国国有農場と稲作職工農家」《再編下の家族農業経営と農協》、筑波書房、2004를 참조.

그림 3-1. 한국과 일본의 쌀 수급추이



A 한국 B 일본

주 : 우리나라는 당해년도의 재고량,
일본의 경우 전년도 재고량의 증감량을 표시하였음.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 연도,
일본 農林水産省, 「食料需給表」, 各 年度.

일본의 2002년 쌀 생산량은 885만톤, 수입량은 65만톤으로 시장에 공급된 쌀은 900만톤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3]. 그리고 2002년의 국내산 재고량은 201만톤, 수입쌀의 재고량은 94만톤이다. 쌀 수급의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일본의 경우 이미 1972년부터 쌀의 과잉기조를 맞이하여 생산조정을 실시하여 왔다. 정부에 의한 계획적인 쌀 수급대책(생산조정)을 마련해온 일본은 작황의 변화에 따라 과잉과 부족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나, 해마다 감소하는 쌀의 소비량에 맞추어 생산량이 하향 조정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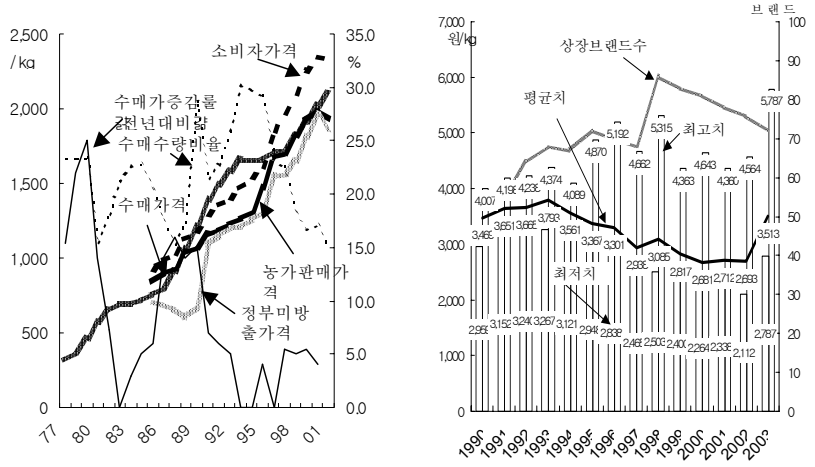
3 일본 농림수산성 총합식료국 자료에 의함.

이상으로 식품수급표의 쌀 수급추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쌀은 약간의 과잉을 안고 있긴 하나, 수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그간의 교역실적으로 보아 국제적인 교역재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다만 소비량을 통해 본 쌀 시장규모에 관해서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 두 배 정도 크다 할 수 있다.

1.1.2. 쌀 가격동향

우리나라와 일본은 주식인 쌀을 정부 관리 하에 두어 왔다. 그리고 정부미의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지표가격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쌀 가격은 2001년의 정부미 수매의 경우 2,097원/kg(생산량의 15% 수매), 방출 가격은 1,863원/kg이다. 동년도의 농가판매가격은 1,929원/kg, 소비자가격은 2,335원/kg이다<그림 3-2>. 그간의 정부미 수매가격은 1980년대 후반 15% 전후의 인상을 거듭한 뒤 1994년 UR 협상 타결 이후는 소폭의 인상 또는 동결에 그치고 있다. 무엇보다 특징적인 현상은 1990년대 수매가격을 하회하는 수준에서 유지해 온 소비자가격은 1998년 이후 수매가를 상회하며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

그림 3-2. 한국과 일본의 쌀 가격 비교



A 한국 B 일본

자료 : 한국 농림부, 「양정자료」, 각 연도,
일본 財団法人全[illegible]米[illegible]取引・価格形成センターの 입찰결과 자료.

한편 일본의 경우는 이미 1980년대 중반 이후 매년 인상해 왔던 정부미가격이 하락하였고, 나아가 1995년의 식량관리법 개정에 따라 정부에 의한 쌀의 전량관리는 포기하게 되었다. 현재의 식량법 하에서는 비축미를 제외한 쌀은 계획미와 계획외미로 나뉘어져 전자의 경우는 자주유통미 가격형성센터의 입찰회수 별 낙찰가격이 지표가격으로 제시되는데 그치고 있다. <그림 3-2>는 일본의 미가동향을 산지별・품종별 쌀의 지표가격을 연도 별로 표시한 것이다. 매년 지표가격의 평균은 지속적으로 하락[4]하여 2002년에는 과거 최저가격

4 2003년도 쌀 가격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예외적인 기상이변에 의한 가격상승이므로 2002년의 지표가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2002년의 입찰방식의 개정에 의해 가격폭의 제한이 철폐되어 그 이전의 가격하락률보다 비교적 빠른 속도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

인 2,694원/kg으로 떨어 졌는데, 이는 1990년의 지표가격 평균(3,469원/kg)에 비해 22.3% 하락한 것이다. 특히 최근의 지표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에 낙찰된 쌀의 가격(2002년 2,112원/kg)이 앞서 본 우리나라의 소비자가격(2002년 2,335원/kg)을 하회하는 가격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정부수매가격의 인상을 통해 쌀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시켜 왔으며 최근 일련의 수매제도 개편 속에서 소비자가격을 큰 폭으로 상승시키고 있다. 반대로 일본의 경우는 과거 10여년간 쌀 가격의 하락이 계속되어 왔다. 일본은 향후에도 쌀 가격의 하락에 더욱 박차가 가해지리라 예상된다.

1.1.3. 쌀 유통과정

(가) 한국

우리나라의 쌀은 수확 후 정부미로 출하되거나 도정기능을 가진 정미소 또는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의해 구입되며, 이들 RPC가 직접 미곡소매상 또는 대형양판점과 중간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거래하거나 또는 중간유통단계에서 도매상에게 판매된다. 이 점은 후술하는 일본의 쌀 유통과정과 대조적이다. 우리나라는 RPC를 중심으로 생산과 판매를 통합하여 최종소비자와의 거리를 단축시키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여전히 중간유통단계에서 도매업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농협이 운영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의 수나 농협의 양곡도매기능을 감안할 경우 농협은 산지에서의 집하와 쌀

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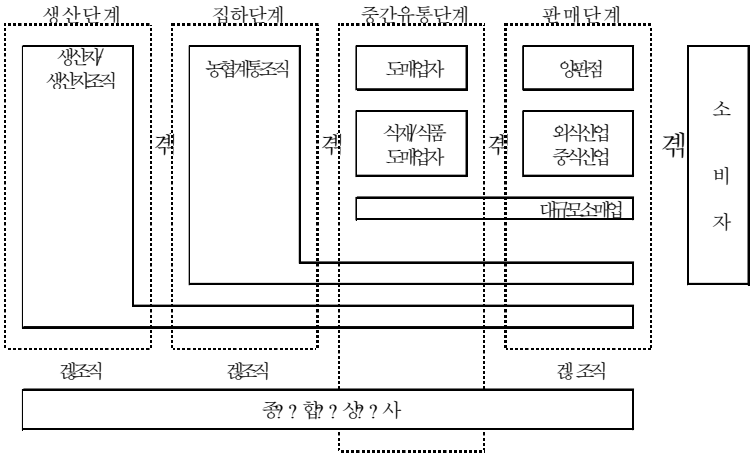
의 가공 판매에 있어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나). 일본

일본의 쌀 유통과정은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복잡 다양하다<그림 3-3>. 전국농협연합회와 전국미곡집하연합이 산지수집기능을 가지며, 산지에서 집하된 쌀을 출하하는 출하업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는 농협이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도매업체와 소매업체는 출하업자로부터 쌀을 구입하게 된다. 그러나 반드시 출하단체 도・소매업자라는 단선적인 유통경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생산자 또는 생산자조직이 최종소비자와 직거래를 하는 경우와 함께 소매상이 산지를 직접 확보하는 경우가 있어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 중간유통단계에서의 도매업체의 역할이 매우 크다. 도매업체는 산지와 소매 또는 급식 및 외식업체, 쌀 가공업체를 연결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그림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규모 도매업체가 일본굴지의 종합상사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산지단계에서 소매업체와 대량수요처가 원하는 쌀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과 리스크의 경감을 종합상사와의 역할분담 속에서 이루어 내고자 하는 전략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3-3. 일본의 쌀 유통과정



자료 : 冬木勝仁,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下のコメ·ビジネス", 日本経済評論社, 2003, p 60.

1.2. 일반 소비자 세대의 쌀 구매가격 및 소비행태로 본 쌀 시장

1.2.1 소비자의 쌀 선택범위

우리나라와 일본의 정부에 의한 쌀의 관리영역은 현저히 축소되고 있다. 과거에는 쌀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국민에게 공급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과잉기조와 쌀 시장개방으로 저렴한 외국산 쌀과의 경쟁 속에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는 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시장개방에 따른 수단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생산비용의 절감, 품질향상과 더불어 품종 또는 생산과정의 차별화를 통한 제품차별화, 가격

차별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표등록, 의장등록이 장려되고 있으며, 품질 및 친환경인증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1,000여개의 브랜드미가 등록되었다. 이들 브랜드미 중에는 상표등록, 의장등록, 품질인증, 친환경인증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쌀이 많으며, 생산방법에 있어서도 관행농법이 아닌 특별재배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상표등록 상황 등에 관해서 확인된 바는 없으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상표의 쌀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가격형성센터에 상장되는 쌀은 현재 70여개가 있으나, 산지별 품종별로 구분되고 있다. 또한 소매단계로 들어가면 이들 산지별 품종별 쌀은 혼합미(Blend)의 형태로 보다 세분화되어 각 미곡상들이 독자적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으므로 그 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1.2.2. 쌀 상품별 소비자가격

품종별, 산지별, 생산방법별로 다양한 쌀의 가격을 하나의 지표로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아래와 같은 소비자 쌀 가격을 이용하여 양국의 쌀 가격을 비교하였다.

한국 : 대형 양판점 상설할인판매점(이마트, 카르프, 롯데 홈플러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과 더불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브랜드 쌀의 가격을 취득하여 표시하였다<그림 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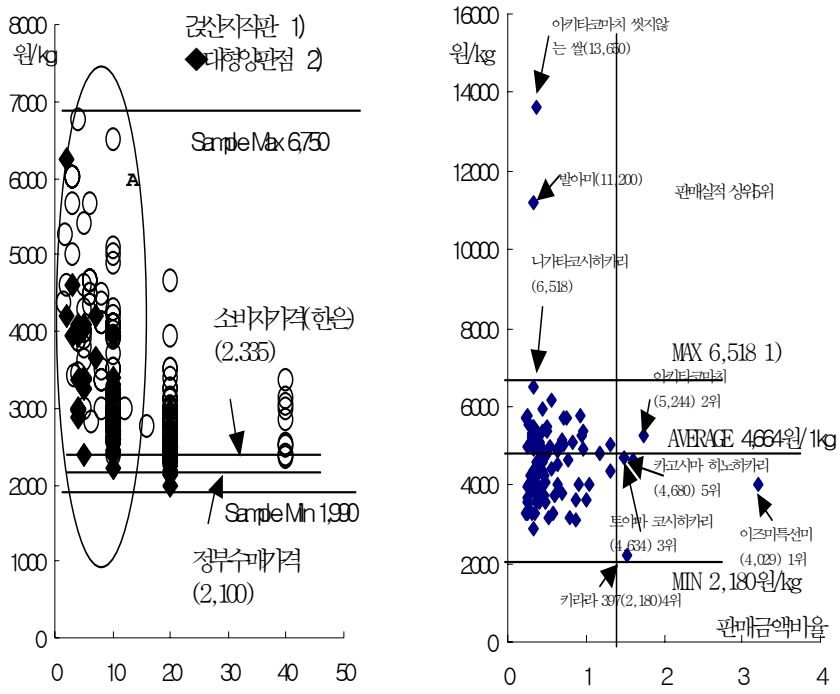
일본 : 일본의 경우는 재단법인유통시스템개발센터가 매월 제공하

---

5 대형할인점의 쌀 상품가격은 2004년 1월과 8월 이마트 부산 양정지점, 카르프 부산 해운대 지점, 롯데 홈플러스 부산 사직점의 조사를 통해 확보하였으며, 총 61개 상품의 가격이다. 인터넷 상의 쌀 상품가격은 농림수산정부센타의 홈페이지(www.affis.or.kr)에 확인된 159개의 브랜드 가격이다.

는 POS시스템의 정보(2004년5월)처리 결과를 소비자가격으로 이용하였다<그림 3-4>.[6] 그러나 <그림 3-4>에서 확인된 쌀 상품은 모두 혼합미(Blend)이기 때문에 산지별, 품종별 가격은 일본 농림수산성의 가격정보를 이용하여 별도로 표시하였다<표 3-1>.

그림 3-4. 한국 및 일본의 쌀 상품별 소비자구입가격 비교



6 食品産業新聞社,「月刊米と流通」2003．7

표 3-1. 산지/품종별로 본 일본 쌀 가격

	브랜드명 산지(현)/품종	도매가격	소매가격
1	아오모리/무쯔메보래	3,862	4,683
2	아오모리/유메히카리	4,085	4,874
3	시가/니혼바래	4,381	5,046
4	시가/키누히카리	4,508	5,117
5	홋카이도/키라라397	4,352	5,127
6	홋카이도/호시노유메	4,649	5,140
7	후쿠오카/히노히카리	4,559	5,178
8	쿠마모토/히노히카리	4,402	5,260
9	아오모리/쯔가루로망	4,477	5,265
10	후쿠이/하나에츠젠	4,658	5,303
11	후쿠오카/유메쯔쿠시	4,783	5,818
12	미야기/사사니시키	4,903	5,846
13	이바라기/코시히카리	5,055	5,875
14	토치기/코시히카리	5,194	5,888
15	치바/코시히카리	5,171	5,899
16	후쿠시마/코시히카리	5,244	5,952
17	미야기/히코메보래	5,066	6,046
18	야마가타/하에누끼	5,037	6,084
19	이와테/히토메보래	5,179	6,135
20	아키타/아키타코마치	5,209	6,157
21	토야마/코시히카리	5,313	6,214
22	나가노/코시히카리	5,289	6,239
23	니가타/코시히카리(일반)	5,814	6,894
24	니가타/코시히카리(워누마산)	8,611	9,584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내부자료.

한·일 양국의 소비자 쌀 가격정보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과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쌀 점포에 진열되는 포장 쌀의 가격분포를 통해서 양국의 쌀 가격을 비교하면 현저한 격차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샘플 상품 중 가장 비싼 가격은

6,750원/kg(5kg 포장)이며, 가장 싼 가격은 1,990원/kg(20kg 포장)이다. 일본은 가장 비싼 가격이 6,518원/kg(5kg 포장)[7]이며 가장 싼 가격이 2,180원/kg(5kg 포장)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본의 경우 농림수산성이 제공하는 주요 산지・품종별 소매가격과 진열된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표 3-1>에 표시한 모든 산지 단일 품종의 브랜드 소매가격이 POS 순위 100위 이내의 평균가격을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산지별 단일 브랜드로 거래되는 쌀을 우리나라의 쌀 가격과 비교한다면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POS 100위 이내의 쌀 상품 중 비교적 판매실적이 높은 상품들은 산지와 품종을 상표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저가 품목(아키타코마치, 토야마코시히카리, 카고시마히노히카리, 홋카이도키라라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판매금액 실적이 1위인 '이즈미특선미'는 혼합미로서 산지・품종명이 상품이름에 표시되지 않는 쌀이다. 따라서 일본의 일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이 반드시 고품질의 비싼 쌀이 아니라, 중저가 상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구매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3. 쌀의 소비행태를 통해 본 쌀 시장

(가) 쌀의 포장단위

일반 슈퍼나 쌀가게에 진열되는 쌀의 포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

7 POS 집계에 따르면 아키타코마치 씻지 않는 쌀이 13,650원/kg(2kg 포장),발아미가 11,200원/kg(1kg 포장) 으로 가장 비싼 가격이나 이들 상품은 일반 멥쌀이 아니므로 제외하였음.

20kg 또는 10kg 포장이 주류이나 일본의 경우 포장 쌀은 5kg단위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간혹 10kg 포장이 보이는 정도이다.

(나) 구입가격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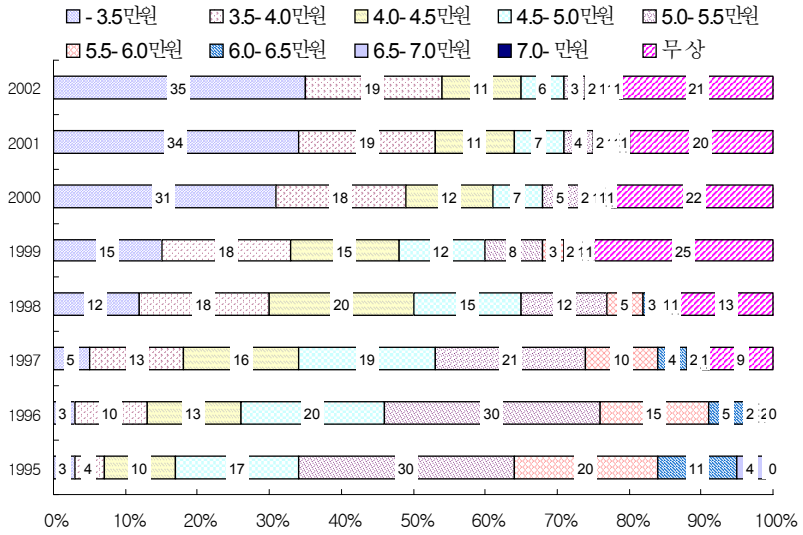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8]에 의하면 20kg 포장으로 환산했을 경우 4만원~5만원 이하(10kg 환산가격 2만원 ~ 2만5천원)대의 쌀을 주로 구입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kg 포장으로 6만원(10kg 환산 3만원) 이상의 쌀을 구입하고 있는 소비자는 전체 응답자의 5%미만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는 10kg당 4만원 미만(20kg 환산가격 8만원)의 쌀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전체 응답자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5만원(10kg) 이상의 상대적으로 비싼 쌀의 구입자는 전체 소비자 세대의 10%미만이라 볼 수 있겠다. 한편 일본의 모니터 조사를 연차별로 확인해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저가격대의 쌀 구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친척이나 형제로부터 무상으로 쌀을 제공받는 소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그림 3-5>.

---

8 이계임, 김민정, 「쌀 소비행태분석」, 연구보고 R45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12.

그림 3-5. 일본의 소비자가 주로 구입하는 쌀 가격대



자료 : 일본 農林水産省, 「食料モニター定期調査結果」, 各 年度.

(다) 쌀 구입처

다양한 쌀이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만큼 쌀을 구입하는 장소도 다양하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쌀 구입처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쌀 전문점에서 쌀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급격히 줄어 든 반면, 일반 슈퍼나 대형할인점에서 쌀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다만 몇 가지 점에서 약간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첫째, 농협을 통한 쌀의 구입이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농협은 소비지에 하나로마트 등의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는 농협이 운영하는 슈퍼(A co-op)가 있으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점포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우리와 다른 점이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미곡종합처리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이 소비자에게 쌀 상품을 가공하여 직접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쌀 유통 과정에서 농협의 역할과 기능은 일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 하겠다.

둘째, 소비자가 산지로부터 직접 쌀을 구입하는 경우가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산지에서 직접 쌀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5.6%[9]로 나타난 반면, 일본의 소비자 중 생산자로부터 직접 쌀을 구입하는 비율은 22.3%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형제로부터 무상으로 쌀을 제공받는 소비자가 두드러져 보인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형제로부터 무상제공 또는 연고미 형태로 유통되는 쌀은 전체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계[10]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도시의 소비자가 연고미와 무상으로 제공받아 쌀을 소비하는 비율이 약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

9 이계임, 김민정. 전개서, p38 표4-8.

10 농협중앙회 양곡부, 「2003 쌀의 유통경로별 추정량」 자료 인용.

표 3-2. 일본의 소비자가 쌀을 주로 구입하는 방법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일반슈퍼마켓	21.4	19.0	23.8	24.0	24.0	24.0	28.0	27.0	28.0	31.5
농가로부터 직접구입	14.5	14.0	14.0	17.0	16.0	18.0	20.0	21.0	20.0	22.3
부모형제로부터 무상	-	17.0	14.6	17.0	21.0	24.0	18.0	18.0	20.0	13.0
생협	17.9	14.0	14.6	13.0	13.0	10.0	12.0	11.0	11.0	12.1
싸전(미곡전문점)	34.5	26.0	22.5	19.0	15.0	13.0	12.0	11.0	10.0	7.3
농협	8.9	8.0	7.0	5.6	5.0	5.0	5.0	5.0	5.0	2.4
대형할인점	-	-	0.0	0.0	3.0	2.0	3.0	2.0	2.0	3.3
편의점	-	-	0.7	1.0	0.0	0.0	-	0.0	0.0	0.1
백화점	-	-	0.0	0.0	0.0	1.0	1.0	1.0	0.0	1.1
기타	2.8	1.0	1.3	2.0	2.0	2.0	1.0	4.0	4.0	7.0

자료 : 일본 農林水産省,「食料モニター定期調査結果」, 各 年度.

생산자조합으로서 농협이 직영하는 슈퍼나 생협에 수입쌀을 진열하거나, 산지직거래로 쌀을 구입하는 소비자세대를 수입쌀의 잠재적 수요자로 상정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양국의 쌀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수입쌀의 규모는 국내의 쌀 소비량만큼이 아니라 가격대나 소비자의 성격에 따라 전체 쌀 시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외식 또는 중식업체가 거래하는 쌀 시장과 일반 소비자 세대가 거래하는 쌀 시장을 분리해서 본다면 수입쌀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은 더욱 세분화시켜 생각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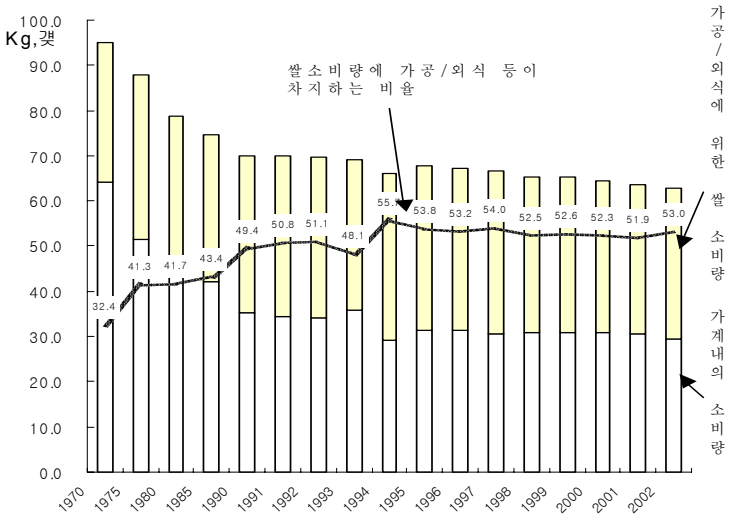
(라) 가계소비량과 외식 및 쌀밥의 소비

식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외식, 중식, 내식으로 나뉘어 진다. 쌀 소비를 이와 같이 구분해서 보면 내식의 비중이 식생활의 편

리화, 간편화에 따라 상당부분의 소비가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쌀의 많은 부분이 외식이나 중식의 형태로 소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2003년)의 경우는 가계 밖에서 소비되는 양이 가계 내 소비량을 상회하고 있을 만큼 외식과 중식의 비중이 커졌다. 소비량의 비율을 그대로 쌀 수요자의 구입량으로 대체하여 생각한다면 시장에 공급되는 쌀의 절반 이상이 외식 또는 밥 가공업체 들에 의해 구입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외식 및 중식에서의 쌀 소비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으나, 농협 양곡유통부의 추정에 의하면 전체 쌀 소비량의 약30%정도라 한다.

그림 3-6. 1인 1일당 쌀 소비량 추이(일본)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내부자료.

1.3. 수입쌀 품질 및 구입가격에 관한 소비자의식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지금까지 일반 소비자가 수입쌀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경험에 기초한 수입쌀의 평가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자율수입 방식의 쌀 수입에 의한 시장평가의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영무역에 입각한 MMA 방식만으로 수입되어 가공용 쌀로 유통되므로 더욱 그러하다. 반면 일본의 경우 간간이 의향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으나 우리나라 쌀이 대상이 된 적은 없다. 나아가 SBS방식에 위해 수입된 쌀은 식용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되고 있다하나 그에 관한 사후 평가나 판매실적 등의 조사 자료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국내·외산 쌀에 대한 소비자 평가결과는 일반적으로 일본산 쌀의 밥맛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쌀의 경우 Tamaki의 밥맛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중국 쌀의 경우 반금대미의 기호가 매우 낮게 평가되었으며, 칠하원의 경우 국내산 쌀의 기호도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가격평가와 구입의사는 기호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쌀 시료에 대한 정보를 알고 난 후의 소비자들의 구매의향은 일본산의 경우 눈가림 테스트(blind test) 때보다 낮게 나왔으며, 국내산 쌀의 경우 눈가림 테스트 때보다 높게 나타나 국내산에 대한 충성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산 가운데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낸 히토메보레의 경우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입의사를 나타낸 소비자 비율이 75%에 달하였으나, 정보를 준 상태에서 구입의사를 나타낸 소비자는 42%로 크게 감소하였다. 국내산 가운데 경기도 추청의 경우 정보 제공 전·후의 구입의사 비율은 각각 33%와 46%를 나타냈다. 이러한 경향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추청쌀 이외에 실험대상 국산 쌀(강원 오대, 충남 일미, 전남 남평) 모두에서 나타났다.

전문패널에 의한 국내·외산 쌀로 한 밥의 관능적 특성강도 분석 결과 고시히카리(혼합)의 경우 윤기의 정도가 매우 높게 평가되었고, 관능적 품질 면에서 일본산 쌀이 국내산 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특히 고시히카리(혼합)의 경우 관능적 품질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국내·외산 쌀에 대한 소비자패널과 전문패널의 평가 경향은 비슷하다.

일본에서 모니터 조사를 통해 실시된 의식조사의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0%가 수입쌀을 구입치 않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국, 태국, 호주 쌀을 대상으로 지불가격을 확인한 결과 2500원/kg 미만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표 3-3>. 일본의 쌀 기호는 식미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으며 산지와 품종을 중심으로 소비자 선호가 고착화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수입쌀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 수입쌀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

단위 ; 천원, %

	2천원 미만	2~2.5	2.5~3	3~3.5	3.5~4	잘 모름	구입의사 없음	계
미국산	10	14	12	5	1	11	47	100 (1,298)
호주산	10	14	11	5	1	12	47	100 (1,298)
태국산	17	11	5	2	0	8	57	100 (1,298)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食料モニター定期調査結果」, 1999. 8.

1.4. 쌀 생산비를 통해 본 경쟁력

앞으로 예상되는 쌀가격 하락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쌀 1kg당 생산비(2003년)는 평균 1,313원/kg인데, 이는 일본의 2,590원/kg보다 약 2배나 낮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부미 가격과 일본의 자주유통미가격형성센터의 지표가격 평균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 계층의 생산비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이미 경영면적규모 1.5ha 미만 계층의 생산비를 하회하고 있다.

현행의 생산비를 전제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쌀 생산비가 일본에 비해 상대적인 경쟁력을 가지며 향후의 가격경쟁에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경지면적 10ha 이상의 대규모 농가의 생산비 격차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약30% 낮은 정도에 불과하다. 일본의 수도작 경영에 있어서 경영규모 확대와 그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생산비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향후에도 반드시 유지되리라고 낙관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대규모 경영의 생산비는 직접생산비에 비해 간접생산비(지대와 지불이자)에 현저한 격차를 보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한 생산비 절감이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1.5.쌀 수요자로서의 외식 및 쌀 가공업체

앞서 일본은 생산된 쌀의 절반 이상이 가정 밖에서 외식, 중식 그리고 급식의 형태로 소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들 외식 또는 중식 업체, 나아가 밥 가공업체가 구입하는 쌀의 양이 일반세대에 비해 매우 클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이들 업체들이 어

디서 어떤 쌀을 어느 정도에 구입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업체들이 원하는 쌀은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좋은 품질 또는 식미'를 구입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업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일정한 품질의 안정적인 공급을 우선하는 업체들이 많은 점이 주목된다<표 3-4>. 결국 체인을 형성한 대규모 외식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거래물량을 본사가 일괄구입하기 위해서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품질의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산지 또는 도매업체들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업무용 쌀 구입가격에 관한 조사결과[11]에 따르면 가격대는 업체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형태에 따라 3,500원/kg에서 5,000원/kg의 넓은 범위에 분포해 있다. 이 점은 일본의 외식업체나 밥 가공업체가 구입하는 쌀이 값싼 하급 쌀만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11 薬師寺哲郎, "米の業務用需要の動向と今後の見通し", 「農業総合研究」, 第52巻 第3号, 農業総合研究所、第7図참조.

표 3-4. 외식업체의 쌀 구입 기준

단위 : 명, %

판단기준	1위	2위	3위
특정산지 또는 품종	64(13.9)	26(5.7)	46(10.1)
밥을 진후의 양	2(0.4)	5(1.1)	5(1.1)
좋은 품질 또는 식미	232(50.2)	106(23.2)	44(9.7)
일정치 이상의 식미기측정치	8(1.7)	24(5.3)	22(4.8)
안정된 품질 또는 식미	90(19.5)	169(31.0)	93(20.4)
가격이 싼 것	32(6.9)	74(16.2)	144(31.6)
트레스빌리티가 확립 될 것	1(0.2)	7(1.5)	21(4.6)
유기무농약쌀일 것	1(0.2)	1(0.2)	8(1.8)
안정성	24(5.2)	39(8.5)	61(13.4)
기타	9(1.9)	6(1.3)	11(2.4)
합계	462(100.0)	457(100.0)	455(100.0)

자료 : 일본 식량청, 「外食事業者アンケート調査」, 2003. 6.

한편 외식에 관해서는 소비자들의 식재에 관한 의식이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식료와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표 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가정내에서 소비하는 쌀의 구입에 비해 국내산인가 외국산인가에 대한 관심이 외식의 경우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3-5. 외식업체가 사용하는 식재가 국산인지 수입인지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도

단위 : %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려 함	관심은 있으나 확인하지 않음	관심도 없고 확인하지 않음	모름
전체	27.9	51.8	15.2	5.0
남성	25.1	48.9	19.8	6.1
여성	30.6	54.5	11.0	3.9
30대 이하	23.9	54.9	19.7	1.4
40대	26.6	49.2	21.9	2.3
50대	30.2	54.3	12.1	3.5
60대 이상	28.2	50.4	13.8	7.6

자료 : 일본 농림어업금융공고,「食品の輸入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 2004.

1.6. 고찰

이상으로 한·일간 쌀의 교역을 전망하는 입장에서 양국의 쌀 시장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고에서 쌀 시장이라 함은 단순히 쌀이라는 동일 기능을 가진 재화가 거래되는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제품 차별화와 수요자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는 쌀 시장을 의미함은 앞서 밝힌 바 있다. 아래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쌀 교역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였다.

1.6.1. 협소한 쌀 시장

우리나라 쌀이 일본 시장에서 거래된다면 어떠한 수요자를 목표로 할 것인가? 이를 염두에 두고 일본의 쌀 시장의 규모를 재확인하면 우리나라 쌀을 구입할 가능성이 있는 수요자는 극히 일부의 소

비자 세대와 외식 또는 밥 가공업체라고 보아야 한다. 일반 소비자 세대의 경우 부모형제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산지에서의 직접 구입하는 소비자 등은 향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쌀의 구입자로서 상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생협이나 농협이 판매하는 쌀 중에 우리나라의 쌀이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도 만족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쌀이 접근할 수 있는 일본의 쌀 시장은 매우 협소하다. 일반 소비자가 슈퍼마켓, 대형 할인점, 미곡전문점 등에서 쌀을 구입하는 비율은 전체의 40%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품질격차를 고려하거나 외식산업이 요구하는 대량의 쌀의 안정적인 공급을 전제로 한다면 일본의 쌀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일본 쌀이 우리나라의 쌀 시장을 공략한다면 농협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나 연고미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대적으로 고품질, 고가의 쌀에 대한 구입의사가 있는 소수의 고소득층, 일부 고급 외식업체 등이 대상이 되리라 예상된다.

1.6.2. 가격차

소비자가 주로 구입하는 쌀의 가격과 쌀 생산비를 통해 본 경쟁력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어느 정도 우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쌀 상품별 가격은 예상과는 달리 큰 차가 없음을 앞서 확인하였다. 특히 일본의 쌀 중에는 우리나라의 최저가격과 거의 일치하는 상품이 있다는 것은 일본의 하급 쌀은 우리나라와의 가격경쟁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생산비 격차도 일본의 일부 대규모 경영의 경우 큰 차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점들을 의식하여 향후의 우리나라 쌀 가격 인하와 생산비 절감의 목표를 보다 높게 설정하여 조기에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1.6.3. 품질격차

조사내용이나 조사방법을 불문하고 식미분석에서는 일본의 쌀이 우리나라의 쌀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종이나 생산방법은 차치하고라도 수확 후의 관리방법이나 유통과정의 차이가 품질차를 크게 좌우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12].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질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원인이 수확후의 보관 또는 정미・정선과정에서 찾는 연구결과가 적지 않다[13]. 쌀 상품의 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본산의 품질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라면 일본 쌀의 유입량은 예상외로 늘어 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수확후 관리기술과 정미・정선과정의 고도화는 앞으로 우리나라 쌀산업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6.4. 교역과정에 있어서의 정보전달과 물류

우리나라는 그간의 양정제도 개편을 통하여 중간유통단계의 많은 부분을 축소시켰다. 많은 경우에 미곡종합처리장이 직접 소매업체와 연계되고 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관할 지역이 쌀 집하의 범위와 일

---

12 이에 관해서는 한국농정신문/신기술마케넷 주최 '소비지시장 변화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술 전략 세미나' 발표문을 참조.

13 이점에 관련해서는 일본의 JETRO가 실시하는 일본식품 수출촉진세미나 중, 한국에 관한 보고(本田利範, "韓[illegible]における食品マーケットの変化と可能性") 가 주목된다. 발표자인 혼다 씨는 세븐일레븐 코리아의 사장인데, 오니기리(주먹밥)에 사용하는 쌀은 국내산을 사용하나 정미기를 포함한 정선기기는 모두 일본에서 들여와서 사용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확후 관리 및 가공공정이 일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치한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혼합미의 형태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쌀 상품은 대부분 쌀 도매업자 나아가 종합상사가 전국의 쌀 산지를 대상으로 물량확보에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만일 한일 양국간의 쌀 교역이 자유화된다면 상대국 시장의 정보전달이나, 국내의 산지 확보, 수출입 관련수속 및 물류 등의 교역과정을 도매업자나 종합상사의 역할에 크게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쌀 유통과정에는 이들 도매업자나 종합상사의 관여도가 매우 약하다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쌀 수출까지도 일본의 종합상사나 도매업자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녹차의 한·일 경쟁력 비교

대부분의 농산물이 시장개방과 국내가격의 하락 속에서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녹차는 예외적으로 높은 가격과 지속적인 소비확대에 힘입어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는 성장작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커피나 감미음료에 식상한 소비자가 건강식품 또는 전통음료로서의 녹차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녹차의 생산조건이나 가격조건을 세계의 주요 녹차 생산국들과 비교해 보면 세계시장에서 한국 녹차가 가지는 생산성과 가격경쟁력은 매우 열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차 또는 녹차관련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녹차는 높은 관세에 의해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을 둘러싼 논의에서 일본이 녹차만큼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한국의 경쟁력은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한국과 일본의 녹차산업과 녹차시장의 특징과 차이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녹차산업 성장의 지속적인 유지와 WTO 관세할당량의 확대라는 민감한 문제에 대응한 기존의 일부 연구[14]를 답습하면서 일본의 녹차시장의 구체적인 정보를 정리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일본의 녹차산지는 생산조건과 가격형성력에서 큰 차이를 가지는 구산지와 신흥산지로 나누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미나미큐슈

14 박용구, 「녹차 관세할당(TRQ)제도에 따른 한국 차 산업 대응방안」. 박문호, “우리나라 녹차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농촌경제연구」, 제26권 제1호, 2003 등.

(南九州)를 중심으로 한 신흥산지는 대규모 다원에 승용형 엽채기를 사용하는 생산성 높은 영농과 대규모 황차(荒茶) 제조공장을 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구산지와는 비교과 안 될 정도의 가격경쟁력을 가진다. 이에 대해 시즈오카(静岡)와 쿄토(京都)로 대표되는 구산지는 신산지에 비해 높은 비용구조를 가지지만 녹차제품의 가격은 신산지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는 오랜 역사를 가진 일본의 차문화 속에 유명 녹차산지의 지명도가 함께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차별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일본의 농산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산지의 녹차는 구산지의 지명도에 밀려 신산지의 황차를 구산지로 출하하여 산지가 둔갑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일본 녹차시장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입차제품 소비량의 점진적인 축소에 반해, 녹차음료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녹차교역에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입차제품의 소비량 감소는 황차 가격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구산지에 비해 신산지에 커다란 타격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산지가 선택할 수 있는 돌파구는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녹차음료용 원료차 공급과 해외시장으로의 수출이다[15]. 그리고 일본 녹차생산의 비용구조로 보아서 겨냥할 수 있는 시장 속에 우리나라가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 알려진 일본 녹차시장의 정보에는 일본의 신산지에 관한 동향이 거의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녹차산업에 있어 위협적인 존재로서의 일본의 신산지의 녹차산

15 일본이 신산지의 대표격인 카고시마현(鹿児島県)의 다원 중에는 이토앤(伊藤園, 일본 최대의 녹차음료 제조업체)에 원료를 제공하는 대규모 차원이 있으며, 녹차를 독일로 적극적으로 수출하는 다원이 많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구산지에서는 좀처럼 확인되지 않는다.

업 그리고 외국산 녹차의 진출을 어렵게 하는 일본 녹차제품시장의 특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1. 한·일 녹차 수급 및 생산 개황

2.1.1. 수급

가. 일본

일본의 녹차수급은 수출의 감소와 국내소비량의 변화에 따라 과잉과 부족을 경험하면서 현재에는 일정량은 수입에 의존하는 공급부족 상태에 있다. 2004년의 소비량은 101,382톤, 생산량은 91,900톤으로 자급률은 90.1%로 나타났다. 녹차의 국내 생산량과 소비량의 추이를 각종 음료 소비량의 추이와 대조해 보았을 경우 아래와 같은 시기별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16].

제1기는 일본 국내의 황차 가격의 급등에 따른 수입차의 증가가 현저한 시기이다(1965～1975). 이 시기는 국내 소비량과 수출량이 함께 증가하여 국내의 공급부족이 황차 가격의 상승을 가져왔으며, 공급물량 확보를 위한 수입이 확대되었다.

제2기는 국내소비량의 감소와 수출량이 감소하는 속에서 국내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과잉 상태로 접어드는 시기이다(1975～1989). 녹차 소비량의 감소와 커피 등의 소비량의 확대는 녹차 이외의 음료로 수요가 이전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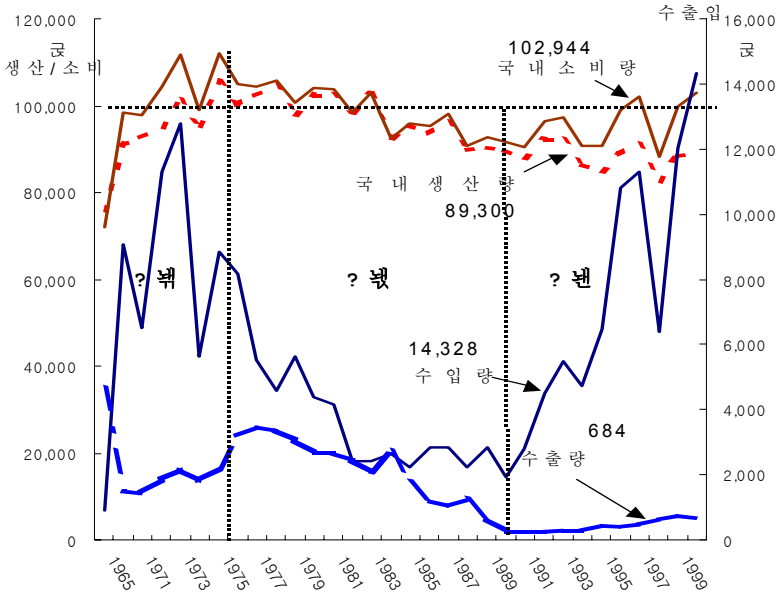
제3기는 국내 소비량이 다시 확대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어 수입차로 공급부

---

16 시기구분에 관해서는 [illegible]田佳助, "茶の経[illegible]分析", 農林統計協[illegible], 1986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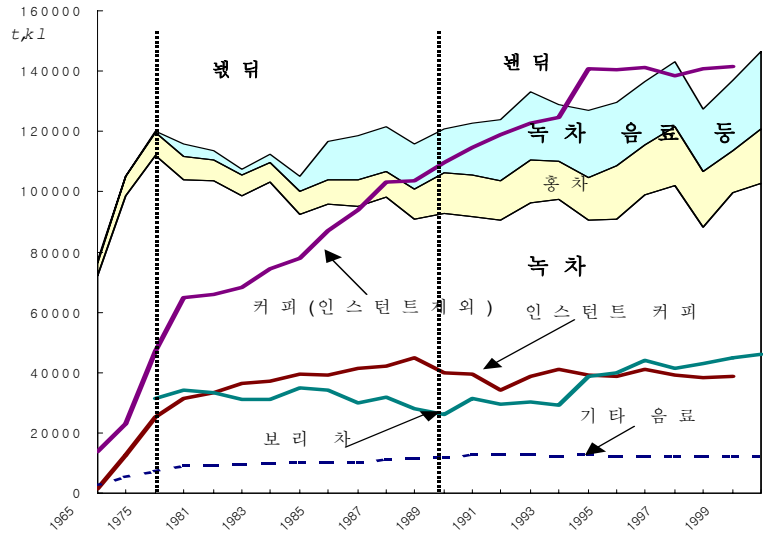
족을 해소하고 있는 시기인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1990년 이후). <그림 3-8>에서 보면 커피를 포함한 녹차 이외 음료의 소비량은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녹차의 소비량만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0년 이후의 녹차의 소비량 증가는 녹차음료에 의해 견인되고 있으며 입차제품의 소비는 장기적으로 보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뚜렷한 특징이다. 또한 공급부족 해소를 위한 국내 생산기반의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그림 3-7. 일본의 녹차 수급추이



주 : 1) 국내 소비량은 ((국내생산량+수입량)-수출량)을 의미함.
2) 그래프상의 실수는 2000년도의 수치임.
자료 : 일본 農林水産省, 「茶統計年報」 및 財務省, 「通[illegible]統計」, 각 연도.

그림 3-8. 일본의 음료별 소비량 변화 추이



주 : 1)녹차 및 녹차음료는 누적그래프로 표시.
2) 녹차음료에는 우롱차가 포함.
3) 기타 음료에는 탄산음료, 과실음료, 커피음료, 음용유 등이 포함.
자료 : 일본 社団法人茶業中央會, 「[illegible]係資料」,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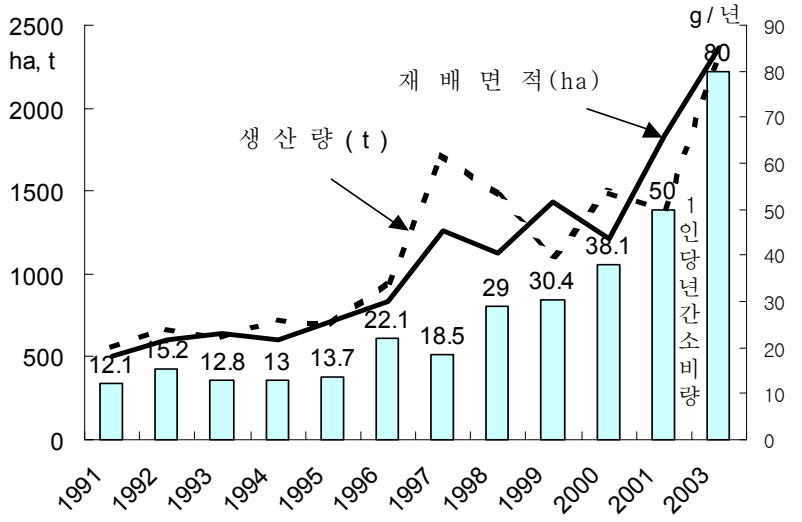
나. 한국

우리나라의 녹차 생산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에 급속하게 확대되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1990년대 이전의 차산업 관련 통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1990년 이후의 자료를 통해 수급상황을 살펴보았다.

2003년의 우리나라 녹차생산량은 2,321톤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녹차는 생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1990년대 후반의 차 생산면적 및 생산량의 확대는 괄목할만하다. 또

한 수출과 수입은 전체 생산량 또는 공급량에 비해 미미하며 녹차의 자급률은 97%에 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1인당 녹차 소비량의 급격한 증가는 국내 생산량의 확대 속도를 상회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는 녹차 수입량의 증가가 예상[17]된다는 점은 주의해 보아야 하겠다.

그림 3-9. 우리나라 녹차 생산의 추이



자료 : 한국 농림부, 「특용작물재배실적」 및
전남농업기술원, 「한국차산업 현황과 발전방안」, 2004.

17 김종태, "우리나라 차 산업의 현황과 전망", 한국차문화협회지, 2000. 5-6월호.

2.1.2. 생산

가. 일본

일본 최대의 녹차 산지는 시즈오카현으로 약 38,800호의 농가가 20,500ha의 다원에서 40,900t의 녹차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전체 녹차 생산량의 44.5%에 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즈오카 다음으로 큰 산지가 카고시마현인데 8,870호의 농가가 8,350ha의 다원에서 21,300t(전체의 23.1%)의 녹차를 공급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녹차의 주산지를 14개 현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들 두 산지가 일본 전체 녹차생산량의 68.6%를 점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들이 일본을 대표하는 산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들 두 산지는 구산지와 신산지를 대표하는 존재인데, 시즈오카가 구산지, 카고시마가 신산지이다.

두 산지는 생산기반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신산지인 카고시마는 경사가 거의 없는 평지 다원에 승용형 엽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구산지인 시즈오카는 경사진 다원이 상대적으로 많아 승용형 엽채기의 도입이 곤란한 산지이다. 특히 승용형 엽채기의 사용이 곤란하고 야부키타품종[18]에 크게 치우친 구산지의 생산조건은 다원의 규모 확대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탓에 녹차 재배농가 1호당 다원면적이 카고시마에 비해 작다. 또한 이와 같은 생산조건의 차이는 다원 재배농가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작업에 의한 수확작업의 부담이 폐원을 초래하여 시즈오카현 전체의 생산량은 점차적으로 감소한 반면에 신산지인 카고시마는 승용형 엽체기의 도입과 보급

18 2001년도 시즈오카의 녹차 식부면적에서 차지하는 야부키타의 비율은 92.4%이다. 이에 반해 카고시마는 동비율이 42.3%이다.

으로 다원의 지속적인 규모 확대가 진행 중에 있으며 녹차재배농가 1호당 경영면적은 현재 94a[19]로 다른 여타의 산지에서는 볼 수 없는 대규모 경영이 전개되고 있다.

표 3-6. 일본의 주요 녹차산지의 생산조건 비교

경사도별 다원면적				
	0~5도	5~10도	10~15도	합계(A)
시즈오카(ha)	7,337	4,081	5,350	16,768
%	43.8	24.3	31.9	100.0
가고시마(ha)	8,320	30	0	8,320
%	99.6	0.4	0.0	100.0
승용형 엽채기의 보유대수				
	수익면적(B)	대수	B/A(%)	1대당 면적
시즈오카(ha)	1,137	384	6.8	3.0 ha
가고시마(ha)	5,902	1,110	73.4	5.3 ha

자료 : 일본 社団法人茶業中央会, 전개서.

나. 한국

1990년의 녹차 재배면적은 448ha였으나, 10여년이 지난 2003년의 재배면적은 2,360ha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 재배농가 수는 2002년 3,361호로 5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주요 생산지를 도별로 보면 전남, 경남, 제주에 집중되어 있으며, 2002년의 생산실적(량)을 기준으로 보면 전남이 생산량의 65.9%, 경남이 12.2%, 제주가 2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세 개도에서 우리나라 차생산량의 99.9%를 생산하고 있다<표 3-7>. 그리고 시군별로는 보성군, 남제주시, 하동군 등의 몇몇 시군에서 특

19 일본의 녹차재배농가 호당 다원면적 전국평균은 42.3a(2001년)이다.

산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보성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다원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색적인 다원풍경을 관광과 연결시키는 등 녹차관련 비즈니스가 총체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제주도는 태평양화장품의 계열사인 장원산업이 기업적 영농을 내세워 대규모 다원을 형성해 왔는데, 이는 제주도의 1호당 다원면적이 10.5ha로 전국평균(60a)에 비해 규모가 큰 것으로 입증된다. 그리고 강진의 일부 다원도 장원산업의 다원 확대 전략에 따라 조성된 까닭에 호당 다원면적이 상대적으로 크다.

표 3-7. 우리나라 녹차 산지의 현황

	재배면적 (ha)	농가수 (호)	호당면적 (ha)	생산량 (톤)	면적비율 (%)	수량비율 (%)
합계	2,072	3,361	0.6	2,155	100.0	100.0
전남	1,320	1,845	0.7	1,421	63.7	65.9
보성	518	221	2.3	966	25.0	44.8
강진	49	13	3.8	112	2.4	5.2
구례	325	1,156	0.3	48	15.7	2.2
순천	184	88	2.1	96	8.9	4.5
경남	538	1,488	0.4	262	26.0	12.2
하동	441	1,205	0.4	234	21.3	10.9
제주	200	19	10.5	470	9.7	21.8
남제주	123	10	12.3	270	5.9	12.5

자료 : 전남농업기술원, 「한국차산업 현황과 발전방안」, 2004.

우리나라의 녹차 생산면적과 농가수가 늘어나고 있는 배경에는 당연히 국내 녹차 소비량의 확대가 있다.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녹차소비량은 80g이다. 이는 10여년전(1990년)과 비교하여 8배의 증가를 보인 것으로 여타의 경종작물의 소비량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생산의 기술적인 조건은 대부분의 다원이 산간부의 경사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제주도와 강진지역 일부의 다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다원의 채엽작업(수확작업)은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2. 녹차의 유통

2.2.1. 일본

다원에서 엽채 즉, 수확된 생엽은 열처리(덖음)후 유념(비빔)하여 건조시키는 데 이 공정을 1차가공이라 한다. 1차가공이 끝난 상태의 차를 황차(荒茶)라 하며 황차를 가볍게 볶아 건조하는 과정을 수차례 거쳐 흔히 음용하는 차제품이 나온다.

일본의 녹차 유통에서 산지와 도매, 제다업체가 각각 거래에 참가하는 단계별로 보면 생엽에서 황차까지의 가공이 산지에서 이루어진다. 산지에서 출하되는 황차는 차 전문 도매상(問屋)이 산지를 전전하며 수집하거나 각 산지에 설립되어 있는 차 전문 시장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하여 매입한다. 이렇게 해서 수집 또는 매입된 황차는 제다업체에 최종적으로 건네져 2차가공 과정을 거쳐 음용차로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이와 같은 일본의 녹차 유통과정이 가지는 최대의 특징은 제다업체가 요구하는 황차의 품질과 출하시기가 산지의 황차 가격을 규정한다는 점이다. 이는 녹차시장에 응찰하는 상인이나 도매상인들이 대부분 제다업체와 결탁되어 수집상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에서 쉽게 알 수 있다<그림 3-10>.

한편 산지에서 출하되는 황차 중 많은 양이 시즈오카현이나 쿄토로 유입되는 것도 일본 녹차 유통구조의 특징이다. 왜냐하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쿄토와 시즈오카에 제다업체가 집적[20]해 있으므

20 통계에 의하면 일본 전국에 약 1,340개의 제다업체(仕上茶加工企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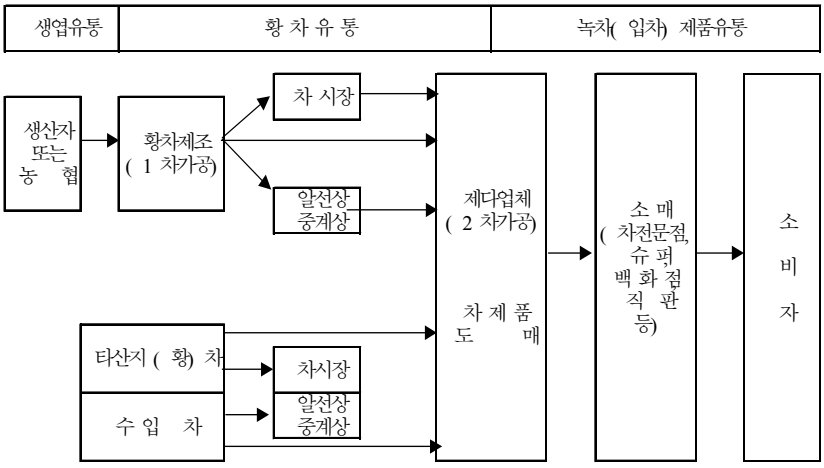
로 황차의 수요량이 많은 점과 함께 일본의 녹차제품의 대부분이 혼합(Blend)에 의해 가공되기 때문이다. 즉, 시즈오카의 제다업체가 판매하는 전차의 경우 산지와 품종, 출하시기에 따라 다른 차색과 향기를 내는 여러 가지 차를 혼합하여 가공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신흥산지의 대표격인 카고시마의 경우 황차 출하량의 54%가 시즈오카와 쿄토로 출하되는 데, 이는 카고시마산 차가 온난한 기후 특성으로 인해 신차(첫물차)의 출하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시즈오카의 제다업체에서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기 때문이다[21].

이상과 같은 일본의 녹차 유통구조는 첫째, 산지에서의 생산자와 차상인, 제다업체가 각각 역할을 가진다는 점, 둘째, 차 유통의 일련의 과정을 제다업체가 조율하는 힘이 매우 크다는 점, 셋째, 일본의 제다업체는 중소규모의 기업규모로 그 수가 1,340에 이를 정도로 많으며, 녹차 제품은 그 많은 제다업체의 독특한 혼합 기술에 의해 맛과 향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유통과정과는 많이 다르다 하겠다.

가운데 약 30%가 시즈오카, 11.9%가 쿄토에 입지하고 있다.

21 참고로 시즈오카에 개설되어 있는 차시장에서 취급되는 수량의 38.1%가 타산지의 황차이다.

그림 3-10. 일본의 녹차유통경로(시즈오카 시장을 중심으로)



2.2.2. 한국

우리나라의 녹차 유통구조는 산지의 생산자가 대부분 제다업체로서 존재하며 2차가공까지 완료된 차를 직접 판매 또는 몇몇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다는 점이 커다란 특징이다. 다만 단일 기업으로 우리나라 녹차시장의 최대의 점유율을 가지는 태평양은 계열기업인 장원산업과 내부거래를 한다는 점에서는 대기업에 의한 직영이라고 보아야 하지만 장원산업이 제다업체로서 2차가공이 완료된 녹차를 전량 태평양에 납품한다는 점에서는 산지완결적인 유통구조임에는 변함이 없다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는 박문호의 조사결과[22]가 참고가 되는데, 산지에 설립된 제다업계가 자가생산하는 비율이 67.8%로 집계되어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이들 제다업체가 산지에서 생산자

22 박문호, 전개서 표 12참조.

로부터 수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과는 달리 일부 수제차와 제대업체가 출하하는 입차제품을 제외하면 녹차제품 유통량의 71%[23]가 티백 상품이라고 추정되는데, 이들 티백 가공차는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획일적인 2차가공공정에 의해 제조되므로 산지와 품종 등이 시장에서 뚜렷하게 평가받을 수 없다는 점과 함께 입차제품 유통량 및 제조업체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산지완결적인 유통구조를 조장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3. 녹차의 가격 및 생산비

2.3.1. 녹차가격

한·일 양국의 녹차의 가격비교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일본의 경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황차 가격이 입차제품의 가격과 연동되는 점, 녹차 시장에서의 거래가 황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다는 점 때문에 통계는 황차 가격을 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반면우리나라의 경우 황차를 거래하는 차상인의 존재는 거의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다업체가 다원을 직영하거나 생엽 상태로 수매하므로 황차 가격이 특별한 가격지표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

23 김동태 앞의 글. 1999년 녹차음료를 포함한 녹차판매금액으로 환산한 시장규모임. 한편 박문호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제주도를 제외한 응답업체의 제품유통량의 41.6%가 티백으로 나타났으나 제주도의 태평양이 판매하는 제품의 많은 부분이 티백인 것을 감안하면 김동태의 추계가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녹차제품은 대부분이 입차유통이며 일부 업무용 수요를 제외한 가정에서 티백상품을 소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나 참고로 일본의 2003년의 황차 가격을 확인해 보면 1번차가 28,680원/kg, 2번차가 10,850원/kg, 3번차가 6,780원/kg으로 집계되어 있다. 아울러 생엽의 생산자 출하가격을 확인하면 2,670원/kg이다. 이를 단순히 우리나라의 생엽 두물차의 kg당 단가 3,000-4,000[24]원과 비교하더라도 일본의 생엽 생산자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매우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25].

더구나 황차 가격은 산지, 출하시기, 품종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참고로 2003년의 첫물차 최저가격은 오까야마의 12,310원/kg였으며 이는 평균가격의 42.9%, 최고가격 42,500원/kg (야마나시산)의 28.9%이다. 생엽 가격과 황차 가격이 비례한다고 가정한다면 앞서 제시한 일본의 생엽 가격을 훨씬 하회하는 생엽 가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우리나라의 생엽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를 짐작케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입차 제품가격을 산지별로 살펴보면 신차로서 품질이 높고 가격이 가장 비싼 우전차의 경우 70,000원/100g에서 90,000원/100g에 분포하고 있으며, 말차(3번차)를 이용하는 세작의 경우 18,000원/100g에서 20,000원/100g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

---

24 Choi, Hyoung-Kook, Tea Breeding and Cultivation in Korea, J. Korean Tea Society, Vol.6, No.2, 2000의 자료에 의함. 더우기 동자료에 나타난 1번차(첫물차) 생엽 가격은 7,500-10,000원으로 파악되어 있어, 이와 비교한다면 한국의 생엽 가격이 일본의 생엽 가격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것을 알 수 있다.

25 일본의 황차 및 생엽 가격은 全國茶生産団体連合會の調査結果 및 農林水産省, 「農業物価指數の農産物品目別価格指數」에서 확인하였다. 그리고 모두 보통전차를 전제로 한 것이다. 참고로 옥로, 카부세차는 전차에 비해 수배 비싸게 거래되며 번차의 경우는 전차에 비해 수배 싸게 거래된다.

다. 일본의 경우 통계상으로 파악된 입차 소매가격을 확인하면 2003년도 평균가격이 5,790원/100g[26] 으로 조사되어 있다. <표 3-9>에 의하면 15,000원/100g보다 비싼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약 4%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입차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를 대변한다.

표 3-8. 우리나라 녹차 제품가격

단위 : 원/100g

산지	보 성			화 개			제 주		
제품	우전	곡우	세작	우전	곡우	세작	우전	곡우	세작
가격	70,000	40,000	18,000	80,000	40,000	20,000	90,000	40,000	20,000

자료 : 전남 농업기술원 , 전개서.

표 3-9. 일본의 소비자가 주로 구입하는 녹차 가격대

가격	응답자수	비중(%)
합계	501	100.0
5,000원 미만	43	8.6
5,000～8,000원	159	31.7
8,000～10,000원	167	33.3
10,000～15,000원	91	18.2
15,000～20,000	18	3.6
20,000원 이상	2	0.4
n.a	21	4.2

자료 : 일본 차엽중앙회, 「[illegible]茶消費」, 2004.

26 [illegible]務[illegible], 「小[illegible]物価統計調査年報」, 2004도 자료에서 전국 도시부의 보통전차의 중급차 가격을 집계하여 가중평균한 것임.

2.3.2. 녹차생산비

한·일 양국의 녹차생산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녹차 특히 생엽 단위당 생산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자료가 없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일본에 관해서는 시즈오카현과 카고시마현의 두 산지를 동시에 비교하였다. 아울러 직접생산비만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의 녹차 생산조건의 차이를 파악하는 정도에 그치고자 한다.

결론부터 보면 우리나라의 10a당 녹차 생산비는 일본에 비해 50% 내지는 30%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kg당 생산비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거의 같은 수준이거나 오히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요인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10a 당 수확량이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일본에 수확량이 떨어지는 품종, 투입물 특히 시비량의 차이 그 밖의 다원관리기술의 차이가 10a당 수확량의 격차로 표현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편 다원재배에 투입되는 물재비와 노력비를 비교해 보면 투입물 비용은 일본의 20%에 지나지 않으나 노력비는 시즈오카보다는 30% 낮지만 카고시마에 비해서는 3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본의 산지 중에서도 카고시마와 시즈오카의 노력비 격차가 현저함도 매우 주목되는 점이다. 이와 같은 노력비의 격차는 수확기술의 차이에서 나타나는데 카고시마는 대부분의 다원이 경사면에 테라스식으로 형성되어 승용형 엽채기가 주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나 시즈오카의 경우는 경사면을 그대로 이용한 다원재배 방식이 주류를 이루어 기계화가 곤란한 탓에 인력을 동원하거나 가반형 엽채기를 이용한 수확을 하고 있어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녹차의 제조공정별 비용도 녹차제품가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녹차 공정별의 비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하여 일본과의 비교가 곤란하다. 다만 일본의 황차 가공공장은 대부분이 자동화공장으로 기계화 일관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생산자조합을 형성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듀모 황차공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황차 가공비용보다 낮은 비용으로 황차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0. 우리나라와 일본 녹차(생엽) 직접생산비의 비교

		한국(A)	일 본		A/B	A/C
			시즈오카 (B)	가고시마 (C)		
직접 생산비 (원/10a)	물재배	329,493	1,507,650	1,455,040	0.2	0.2
	(농구비)	58,463	309,330	416,770	0.2	0.1
	노력비	1,420,211	1,961,300	1,114,980	0.7	1.3
	(자가)	920,777	1,771,060	938,840	0.5	1.0
	(고용)	499,434	172,280	132,470	2.9	3.8
	계	1,749,704	3,468,950	2,570,020	0.5	0.7
수량(kg/10a)		575	1,242	1,831	0.5	0.3
가격(원/kg)		3,043	2,793	1,404	1.1	2.2

자료 : 박문호, 전개서 및 일본 茶業中央 전개서.

2.4. 녹차에 관한 국경조치 및 교역실적

우리나라의 녹차는 매우 높은 관세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녹차시장은 이렇다 할 보호조치가 없는 가운데 비교적

낮은 관세로 개방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녹차에 관한 국경조치의 내용을 확인한 후 지금까지 한・일간의 교역을 포함한 교역실적을 살펴보겠다.

2.4.1. 관세

우리나라는 UR 타결시에 녹차는 TRQ 품목에 포함시켜 의무수입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수용하였다. 이를 당시 제출된 C/S에서 확인하면 초년도(1994년)의 의무수입량을 4.7톤에서 시작하여 10년후(2004년)까지 수입량을 늘려 최종년도에는 7.8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쿼터물량내의 수입에 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에 쿼터수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초년도 570.7%라는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점차적으로 인하하여 최종년도에는 513.5%로 낮추는 방식이 채용되었다. 이에 비해 일본의 녹차는 기본적으로 관세화에 의해 개방되어 있으며 관세는 일률적으로 20%가 부과되고 있다.

2.4.2.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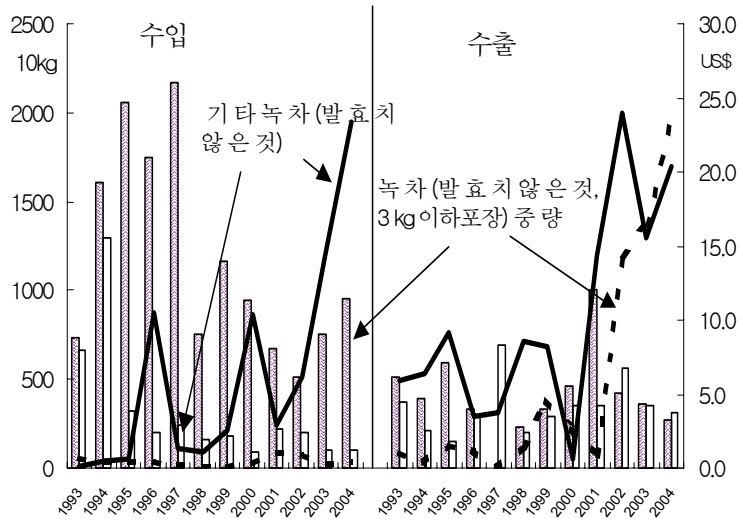
2004년의 녹차 교역량은 수입량은 200톤(29만$)이며 수출량은 약 370t(127만$)이므로 수출이 수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입 품목은 3kg 미만의 입차제품보다 기타 녹차 즉, 원료용 황차의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수입량은 연도에 따라 기복이 있는데 이는 국내 수급상황에 따른 변동으로 볼 수 있겠다. 반면 수출에 관해서는 차제품 수출과 원료차 수출량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입에 관해 주목되는 점은 최근의 관세부과 후의 기타 미발효차의 단가가 1$/kg 전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국내 생엽 수매가격(3,000～4,000원/100g)과 비교한다면 녹차가격의 국내・외 가격차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료 녹차의 주 수입선은 중국으로 2003년도 수입물량의 98.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3kg이하 미발효 녹차 즉, 입차제품 수입실적에서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물량은 34.9%인 점도 매우 주목된다<표 3-11>.

또한 kg당 단가를 보면 수입 녹차는 원료 가격과 제품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지만 수출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수출되는 차는 3kg이하 미발효차로 구분되더라도 원료차에 가까운 제품 또는 하급차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3kg 이하 미발효녹차의 수출가격이 2004년 3.2$/kg로 이를 국내 녹차가격과 비교해 보면 그와 같은 예측이 가능하다. 수출선은 미국이 제품이나 원료 모두 수출수량의 60% 전후로 가장 크고, 일본의 경우는 제품 수출량의 0.6%, 원료용 수출량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녹차 수출입은 수입 그 중에서도 원료용 녹차의 수입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수입가격이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수출 역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가격경쟁력이 낮은 우리나라의 녹차가 생산량의 10% 전후를 수출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사실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림 3-11. 우리나라 녹차 수출입 추이



주 : 선형그래프는 수출입 중량이며 막대그래프는 수출입단가(US$/kg).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품목별 수출입 검색결과.

표 3-11. 녹차 수출입국별 수출(수입)량 및 수출(수입)가격 (2003년)

	국가	중량 (kg)	금액 (US$)	%	$/kg	국가	중량 (kg)	금액 (US$)	%	$/kg
수출	3kg이하 미발효 녹차					미발효 기타 황차(원료차)				
	아랍에미레이트	2,124	5,926	1.5	2.8	오스트리아	3,549	11,133	2.7	3.1
	오스트리아	90	2,400	0.1	26.7	캐나다	162	1,720	0.1	10.6
	호주	8,036	33,221	5.9	4.1	중국	13,935	49,067	10.7	3.5
	캐나다	6,732	23,550	4.9	3.5	영국	20,398	53,704	15.7	2.6
	스위스	1,330	4,123	1.0	3.1	일본	10,010	45,708	7.7	4.6
	중국	102	2,450	0.1	24.0	미국	80,397	348,554	62.0	4.3
	독일	5,621	20,353	4.1	3.6	베트남	893	30,893	0.7	34.6
	프랑스	2,185	9,634	1.6	4.4	기타	325	778	0.3	2.4
	영국	4,266	17,348	3.1	4.1					
	이탈리아	2,327	7,150	1.7	3.1					
	일본	820	3,652	0.6	4.5					
	네덜란드	1,283	6,633	0.9	5.2					
	뉴질랜드	8,898	38,614	6.5	4.3					
	러시아	1,429	4,165	1.0	2.9					
	대만	8,750	24,553	6.4	2.8					
	미국	82,392	382,888	60.0	4.6					
	기타	883	1,086	0.6	1.2					
	전체	137,267	587,746	100	4.3	전체	129,669	541,557	100	4.2
수입	3kg이하 미발효 녹차					미발효 기타 황차(원료차)				
	중국	1,256	3,085	49.9	2.5	스위스	305	2,271	0.3	7.4
	홍콩	69	5,982	2.7	86.7	중국	120,523	132,652	98.9	1.1
	일본	878	15,205	34.9	17.3	독일	210	4,667	0.2	22.2
	미국	97	1,751	3.9	18.1	프랑스	500	3,206	0.4	6.4
	기타	218	737	8.7	3.4	일본	352	2,949	0.3	8.4
						기타	12	482	0.0	40.2
	전체	2,518	26,760	100	10.6	전체	121,902	146,227	100	1.2

자료 : 한국 관세청, 「해외무역통계」, 2003.

2.4.3. 한·일간 교역

일본의 최근 통관실적에서 확인되는 한국 녹차의 수입량은 2000년 318kg 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41만엔(407만원)으로 일본의 수입 녹차 14,327,952kg(4,180,265천엔)의 0.002%(수입액의 0.01%)에 해당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녹차의 일본 현지 수입가격은 1,280엔/kg으로 당해년 평균 수입가격 292엔/kg 의 4.4배에 달한다[27].

한편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녹차의 현황을 살펴보면 1998년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한 녹차는 1,321kg(487만엔, 단가 3.7엔/kg)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녹차 수출량의 0.2%, 수출액의 0.43%이며 타국에 수출하는 단가에 비해 약2.2배 비싼 가격이다. 그러나 최근의 무역통계를 보면 대한국 수출량이 급속히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수출단가 또한 큰 폭으로 떨어 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2. 일본의 대 한국 녹차 수출의 현황(2001년)

구분 / 연도	수출 합계			대 한국 수출			D/A	E/B	F/C
	수량 (kg) A	금액 (천엔) B	천엔/kg C	수량 (kg) D	금액 (천엔) E	천엔/kg F			
1998	651,915	1,131,847	1.74	1,321	4,868	3.69	0.20	0.43	2.12
1999	755,286	1,262,214	1.67	1,956	3,652	1.87	0.26	0.29	1.12
2000	684,495	1,160,477	1.70	10,105	11,270	1.12	1.48	0.97	0.66
2001	599,243	1,152,454	1.92	5,900	11,380	1.93	0.98	0.99	1.00

자료 :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2002.

27 日本財務省, 「貿易統計」 자료는 현시점에서 2001년까지의 실적밖에 확인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통계상으로 그 이후에 일본으로의 수출량이 확인되고 있다.

일본의 녹차 수입(2003년 기준)은 10,242톤, 수입단가 25.9엔/kg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량의 95%를 중국(수입단가 37.5엔/kg)에서 수입하였다. 이를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량(11톤)과 단가 4.5$(540엔)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녹차가 일본의 수입국 선택에 있어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2.5. 한・일 녹차교역에 관한 전망

지금까지 일본과 우리나라의 녹차 수급추이와 유통구조, 생산비, 가격 등을 비교한 후 양국의 녹차교역 현황을 살폈다. 이를 한・일 양국의 자유무역협정 등을 염두에 두고 아래에 다시 한번 정리하였다.

2.5.1. 수급

일본은 녹차 생산량이 우리나라의 40배에 달하며 재배면적은 약 21배이다. 그러나 1990년 이후 국내 생산량이 국내의 소비량을 하회하고 있어 수입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의 일본 녹차 소비량 확대는 녹차음료 시장의 성장에 힘입은 것으로 수입량의 대부분이 녹차음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하급차이다. 입차제품의 경우는 점진적인 수요 감퇴가 계속되고는 있으나 아직은 수급이 균형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의 낮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입차제품의 수입이 눈에 띌 만큼 많지 않다는 점은 매우 주목되는 점이다.

한편 우리나라 역시 녹차 수급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국내의 지속적인 녹차 소비량 확대 속에서 생산기반을 확대해 왔으며 높은 수입관세의 보호를 받으며 높은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티백 제품의 원료차 수입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내의 소비량 증가가 생산량의 증가속도를 능가하고 있는 점, 고율

관세를 언제까지나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향후의 수급에 있어 수입 녹차의 비중이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

2.5.2. 생산조건

우리나라의 녹차 생산비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수확량이 적은 품종을 재배하고 다원 관리기술 수준이 일본에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점과 함께 경사지 다원의 비효율성 때문이다. 이는 일본의 구산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주목되는 점은 일본의 구산지의 다원개량을 위한 모델지역이 카고시마라는 것이다.

시즈오카는 1899년의 시미즈(清水)항이 개항되면서 녹차 산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1890년대 후반 일본의 녹차 수출량은 생산량(25,000～30,000톤)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녹차 수출대국이었다. 이즈음에 개항한 시미즈항은 당연히 녹차수출의 선적항으로서의 역할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선적항 가까이에 제다업체와 녹차의 수출업자 몰려들게 되고 물량확보와 운송거리 면에서 유리한 시즈오카 지역을 녹차산지로 육성하게 되었다[28]. 그러나 문제는 갑작스런 녹차 경기에 조급해진 생산자가 무분별하게 다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산간지역의 경사지가 다원으로 급조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카고시마는 후발 산지로서 구산지에 대항하여 노동생산성이 높은 다원조성을 꾀하여 왔다. 이와 같은 다원조성 시의 장기적인 전략유무가 지금에 와서는 산지의 명암을 달리 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원조성은 현재 과거의 시즈오카의 재현을 보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비효율적인 다원이 확대

---

28 寺本益英, 「戦前期日本茶業史研究」, 有斐閣, 1999, p114－130.

되고 있다. 앞으로 녹차소비 증가와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재고해야할 사항이다.

2.5.3. 가격

녹차 가격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상당히 비싸다. 이처럼 가격차가 현저한 이유는 첫째, 다원의 생산성이 매우 낮고, 둘째, 가공공정의 많은 부분이 기계화되지 않은 채 수작업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은 점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소수의 산지에서만 생산된다는 것, 산지 가격형성에서 생산자 겸 제다업체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점, 수입이 제한된 상태에서 가격하락에 대한 유인이 없다는 점 등이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일본의 경우는 산지생산자와 차상인 재다업체가 각각 거래당사자로서 녹차 유통과정에 참가하여 품질에 기초를 둔 가격형성 메카니즘을 통해 녹차가 거래되고 이는 곧 제품가격에 반영된다. 따라서 녹차의 제품 가격은 천차만별이며 그만큼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다. 우리나라도 생산비절감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산지에 있어서 거래가격이 품질의 차와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격결정 메카니즘을 확립할 필요가 있겠다.

2.5.4. 교역에 관한 전망

우리나라의 녹차 가격이 일본에 비해 비쌀 뿐만 아니라 녹차를 교역재로서 상정할 수 있을 만큼 생산량도 풍부하지 않다. 오히려 국내 소비량의 증가에 대응한 국내 생산기반의 확충에 급급한 상황이다. 또한 일본의 녹차 유통경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차 제품시장에는 제다업체의 층이 매우 두텁고 소비자의 기호 역시 오랫동안 고착화 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쉽게 일본 시장을 개척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최근에는 입차 제품의 표시제도가 한층 강화되어 지명

도가 낮은 국내 산지의 제품마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녹차의 일본시장 진출 전망을 더욱 흐리게 한다.

반면 일본 녹차의 우리나라 진출은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욱이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대부분의 녹차는 입차 제품인 것으로 판단되는 데, 원료용 황차의 경우 중국의 수출가격이 다른 여타의 수출국에 비해 싸기 때문에 국내 수입업자에 있어 일본산 황차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녹차는 우리나라 녹차보다 싼 가격으로 보다 높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무엇보다 염려되는 점은 일본의 입차 제품 수요가 감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녹차 음료용으로 녹차를 출하하는 산지는 거의 드물며 음료용 황차가 거래되는 시장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생산자는 고품질의 황차 출하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려 한다. 그러나 입차 제품 수요의 감소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공급과잉이 발생할 것이며, 동시에 황차 가격의 하락이 우려되며 황차 가격의 하락은 녹차 생산자의 소득저하로 연결될 것이다. 그리고 가격하락의 여파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신산지에 먼저 닥칠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바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불안감은 신흥산지의 높은 생산성을 앞세운 수출시장 개척으로 현실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녹차시장은 이들 신흥산지에게 있어 그 어떤 나라보다 매력적인 시장인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나라 녹차산업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으나, 그 이상으로 일본과의 FTA 협상에 있어서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3. 과실 및 축산물의 한·일 경쟁력 비교

3.1. 경쟁력 지수 비교

한국은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라 곡물류와 축산물은 다른 품목에 비해 피해가 큰 품목들이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곡물과 축산물은 동식물검역에 의한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된 국가가 많다는 것이다. 반면 신선 과실과 채소는 유해병해충 유입 가능성이 커 식물검역법상 수입금지 지역이 많고 관세가 인하되어도 관세 이외에 비관세 장벽과 같은 식물검역법이 보호막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한국의 채소와 과수 재배면적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한국의 과실류 가운데 사과와 배는 국제경쟁력이 있어 수출 품목으로 자리를 잡아왔다. 그러나 일본과의 교역은 검역에 의한 수입규제보다 관세에 의한 수입규제 효과가 컸기 때문에 FTA 등으로 인한 양국간 관세철폐는 과실 및 축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과실 및 축산물의 경쟁력을 가격,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지수), 국별 비교우위지수(CAC 지수) 등을 통해 비교해보고자 한다.

RCA 지수는 수출국의 특정 상품이 국제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잇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RCA 지수는 수출국의 특정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데에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어느 국가의 수출 상품이 국제시장에서 평균적으로 가지는 경쟁력과 특정 시장에서 가지는 경쟁력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고안된 것이 국별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by Country, CAC) 지수이다. CAC 지수는 RCA 지수와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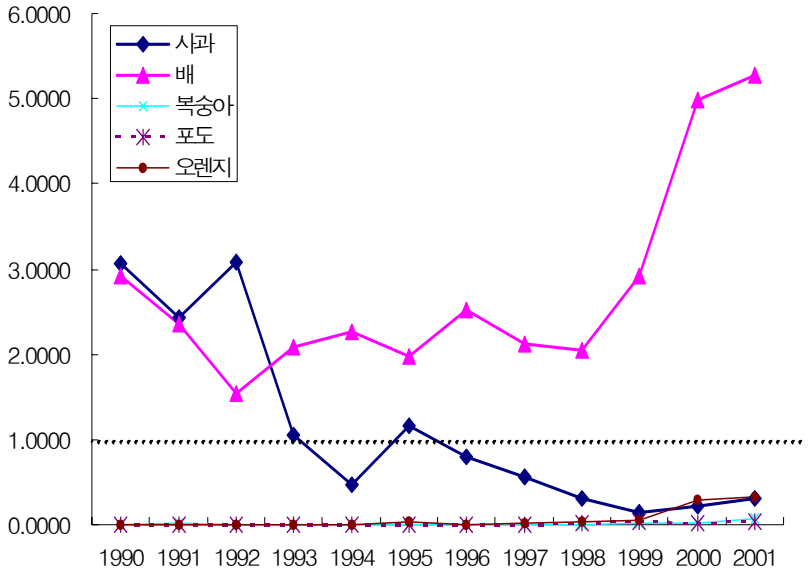
슷한 개념이나 특정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측정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CAC 지수가 1 이상이면 특정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AC = (SXij/SXit)/(Sj/St)

여기서, SXij = 수입국 S의 수출국 i로부터의 j 상품 수입
SXit = 수입국 S의 수출국 i로부터의 전체 상품 수입
Sj = 수입국 S의 j 상품 수입
St = 수입국 S의 전체 상품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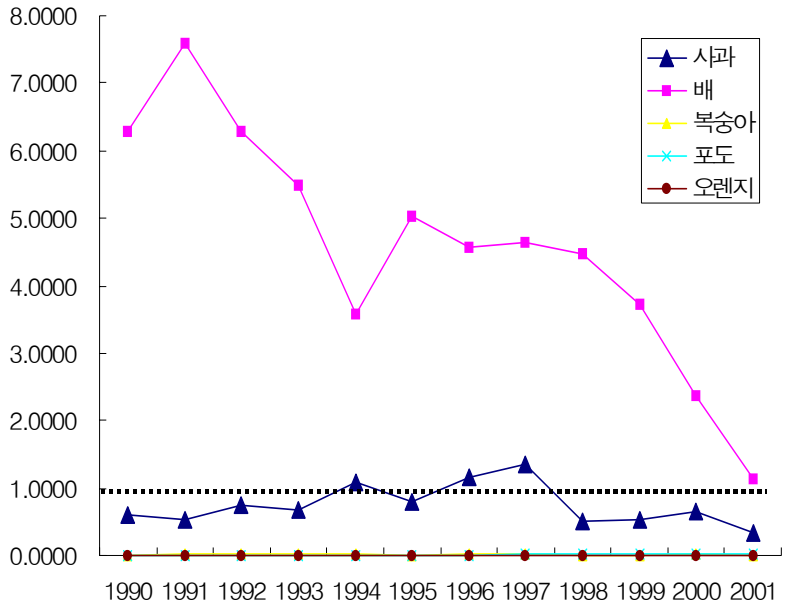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사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RCA 지수도 1 이하로 하락하였다. 사과 수출의 부진은 대만과의 구상무역 중단 등이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배는 RCA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수출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귤, 포도, 복숭아의 RCA 지수는 매우 낮아 경쟁력이 없는 상태이다.

그림 3-12. 한국의 과실류 RCA 지수 변화



일본의 경우 사과와 배를 제외한 다른 과일의 RCA 지수는 매우 낮아 한국과 유사한 상태이다. 배의 RCA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에 수렴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사과의 RCA 지수는 1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나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과실류 국제경쟁력은 낮으며 수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배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림 3-13. 일본의 과실류 RCA 지수 변화



축산물은 한국의 돼지고기를 제외하고는 한국과 일본 모두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품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돼지고기도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RCA 지수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가격경쟁력 이외에 품질 등 기타 요인이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4. 한국의 축산물 RCA 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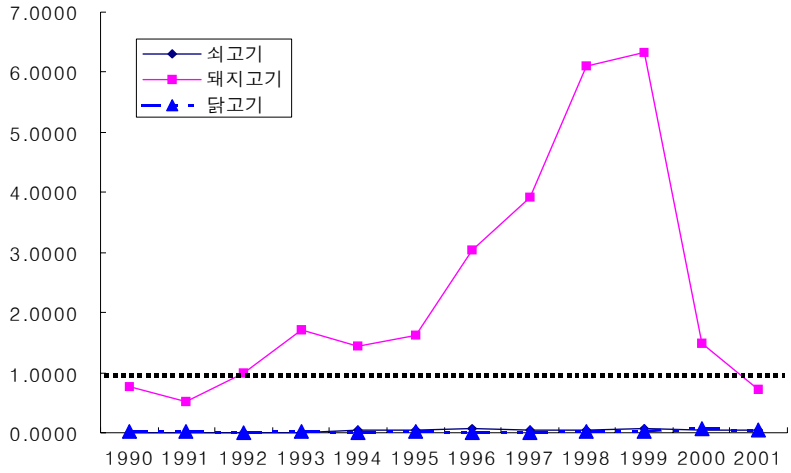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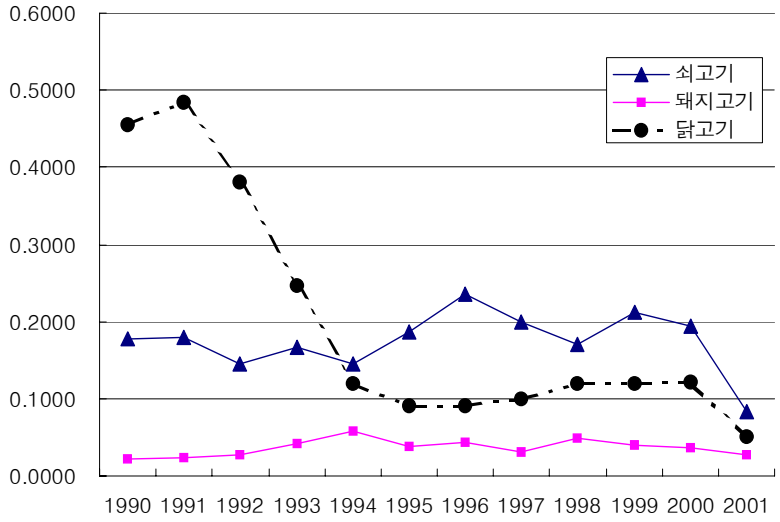


그림 3-15. 일본의 축산물 RCA 지수 변화



CAC 지수로 본 우리나라 축산물의 경쟁력은 대부분 낮게 나타났다. 육류의 경우 일본이 수입하고 있는 97개 품목(HS 02류로 국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품목은 23개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CAC 지수가 1 이상으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1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품의 경쟁력은 육류보다 더 뒤지고 있다. 일본이 수입하고 있는 84개 낙농품(HS 04류로 국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있는 품목은 5개 정도에 불과하다.

육류 가운데 가장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돼지고기로 품목별로 크기에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CAC 지수가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가금육의 CAC 지수도 품목에 따라서는 10 이상인 것이 존재하고 있어 수출 증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낙농품 가운데 CAC 지수가 1 이상인 품목은 거의 없다. 가공치즈의 경우 CAC 지수가 1.72로 낙농품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과, 배, 복숭아, 감귤 등 우리나라 과실류의 일본 시장에서의 CAC 지수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배의 CAC 지수는 2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배의 경쟁력이 특히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주로 소비하는 동양배의 경우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본 축산물의 한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이 수입하고 있는 육류(HS 02류)는 66개 품목이며 일본은 이 가운데 8개 품목 정도를 수출하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낙농품(HS 04류)의 경우 일본은 한국 시장에 수출하는 품목이 13개나 되어 수출 품목 수에 있어서 한국보다 많고 CAC 지수가 1 이상인 품목도 4개로 나타났다.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육류는 주로 식용설육 등 특수한 부위 또는 용도의 고기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낙농품 가운데에서는 기타분유, 유장 등이 수출되고 있다. 감귤, 사과, 배 등 일부 과실류도

CAC 지수는 1 이상으로 나타나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계측되었으나 CAC 지수의 크기는 한국보다 작다. 결국 한국 농산물의 일본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2. 교역 가능성

한국의 주요 과실류 가운데 사과와 배의 대일본 가격경쟁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배 도매가격은 일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과의 가격차이도 불과 10% 정도의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두 품목의 대일본 수출가격과 일본 도매가격 비교에서는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이 사과와 배를 낮은 가격에 전략적으로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과와 배의 수출증대 가능성은 낮다. 특히 한국의 배는 가격경쟁력도 취약하고 일본의 관세율도 4.8%에 불과하여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대 가능성이 사과보다 낮다.

사과와 배의 경우 고품질 과일은 백화점 등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 국내 판매가 일본 수출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는 과일은 주로 중품 정도의 품질을 가지고 있어 일본시장에서는 B급 또는 C급으로 분류되어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으며 국내 출하보다 손해를 감수하고 수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대만시장에서 판매되는 일본산 사과 가운데 봉지를 씌우지 않은 것은 한국 사과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배의 경우 일본의 신고 출하량이 급감하고 있어 한국시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소형 과일을 중심으로 수출 가능성이 있으나 응애 등 검역상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반면 선물용을 중심으로 일본의 고급 과일 수입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복숭아, 포도, 감귤의 대일본 가격경쟁력은 사과나 배에 비해

높다. 그러나 대일본 수출가격과 일본 도매가격을 비교할 때 가격경쟁력을 가지는 품목은 포도 한 품목으로 축소된다. 다른 수출국들과의 가격경쟁력을 나타내는 일본의 수입가격과 한국의 수출가격을 비교한 CIF1을 보면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는 품목은 거의 없다. 복숭아에 부과되는 일본의 관세율은 6%이며 포도와 감귤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17%로 관세가 한국에 대해서만 철폐된다고 하더라도 경쟁국들과의 가격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감귤은 일본이 품질경쟁력(만다린 계통의 높은 당도와 얇은 과육 등이 장점임)을 앞세워 한국에 수출을 증가시키고자 하고 있어 한·일 양국간에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양국의 과실류 교역에 있어서 일본의 선물용 등 고급 과일을 중심으로 수출을 증대시키고 한국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 물량을 증대시킬 전망이다.

표 3-13. 과실류의 경쟁력 및 교역 가능성

품 목	관세율		PC1	PC3	C.I.F1	C.I.F2	CAC^K	MS^K	CAC^j	MS^j
	한국	일본								
사과	45	17	1.11	-	1.21	1.44	4.62	23.5	5.15	100
배	45	4.8	0.84	-	1.0	1.25	20.23	100	1.78	34.6
복숭아	45	6	1.45	1.31	0.89	0.97	7.56	36.5	-	-
포도	45	17	1.95	-	0.7	1.40	0.01	0.1	-	-
감귤	144	17	2.01	-	0.72	0.93	3.79	19.3	2.79	55

주 : PC1은 일본 도매가격(동경)/한국 도매가격(서울) 기준.
PC3는 일본 수입가격/한국 도매가격(서울) 기준.
C.I.F 1은 해당농산물 일본 수입가격/ 일본의 대한국 농산물 수입가격 기준.
C.I.F 2는 해당농산물 일본 도매가격(동경)/ 일본의 대한국 농산물 수입가격 기준.
CAC^K 는 일본시장 한국 농산물의 경쟁력 지수.
CAC^j 는 한국시장 일본 농산물의 경쟁력 지수.
MS^K 는 한국 농산물의 일본 수입농산물 시장 점유율.
MS^j 는 일본 농산물의 한국 수입 농산물 시장 점유율.
가공식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선 농산물 관세율 기준.

한국의 쇠고기 대일본 수출은 소량에 불과하여 수출가격에 의한 가격경쟁력을 논의하기는 어렵다. 양국의 도매가격을 비교하면 일본 가격이 한국보다 60% 정도 비싸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 차이는 2002년에 19%로 축소되었다. 한국은 일본 시장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경쟁국들과의 가격경쟁력에서는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쇠고기 대일본 수출 증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국과 일본의 돼지고기에 대한 가격경쟁력은 한국이 앞서고 있다. 한국의 대일본 수출가격과 일본 도매가격을 비교할 때 한국의 수출가격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현상은 수출되는 돼지고기가 주로 안심과 등심 등 비싼 부위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돼지고기 수입에 대하여 차액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관세는 높은 편에 속한다. 따라서 관세철폐로 인한 돼지고기의 수출 증대 가능성은 높다. 돼지고기의 잠재교역 규모도 2천만달러 이상으로 나타났다.

축산물의 양국간 교역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한국이 유리한 입장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축산물의 부위별 교역에 있어서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면 소꼬리, 쇠족, 닭고기 가슴살 등은 일본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우유의 소매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우유 가격이 일본의 52% 수준으로 타나나 한국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해도 지역은 유가공품에 있어서 일본의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높아 한국과의 직접적인 경쟁이 우려된다. 생유의 kg당 생산비는 일본이 한국보다 28엔 정도 높으나 북해도 지역은 그 차이가 20엔 수준으로 축소된다(스즈키 노부히로 2004).

표 3-14. 축산물의 경쟁력 및 교역 가능성

품목	관세율		PC1	PC3	C.I.F1	C.I.F2	CAC^K	MS^K	CAC^j	MS^j
	한국	일본								
쇠고기	40	38.5	1.58	-	0.56	2.77	0.01	0.0	0.03	0.6
돼지고기	22.5	60	1.69	-	1.24	0.80	3.17	17.1	1.23	24.3
닭고기	18	11.9	-	-	0.97	-	0.83	2.6	-	-

주 : PC1은 일본 도매가격(동경)/한국 도매가격(서울) 기준.
PC3는 일본 수입가격/한국 도매가격(서울) 기준.
C.I.F1은 일본 수입가격/일본의 대한국 농산물 수입가격 기준.
C.I.F2는 일본 도매가격(동경)/일본의 대한국 농산물 수입가격 기준.
CAC^K 는 일본시장 한국 농산물의 경쟁력 지수.
CAC^j 는 한국시장 일본 농산물의 경쟁력 지수.
MS^K 는 한국 농산물의 일본 수입농산물 시장 점유율.
MS^j 는 일본 농산물의 한국 수입 농산물 시장 점유율.
가공식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선 농산물 관세율 기준.

쇠고기의 한국수출 C.I.F. 가격은 냉동(안심)을 적용하였고, 돼지고기는 신선, 냉장, 냉동의 평균 가격을 적용함. 일본의 돼지고기 관세율은 차액관세를 종가세로 환산한 것으로 스즈키 노부히로(2004)에서 인용한 것임.

제 4장

협상전략

이상의 연구결과와 그동안 한·일 FTA와 관련하여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우리나라의 대일본 FTA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농산물 시장개방을 포함한 포괄적 협상 :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일본의 기본 입장은 농업분야는 예외로 하고 WTO 협상에서 논의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와의 협상에서도 일본의 이러한 기본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어 0세율로 양허된 480여개 농산물에 대해서만 협정에 포함시킨 바 있다. 멕시코와의 협상에서도 돼지고기, 오렌지 등 일부 농산물의 양허 문제로 협상이 지연된 바 있다. 한·일간의 FTA 추진에 있어서도 일본은 농업부문이 가장 민감한 부문이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 한·일 양국의 농산물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농산물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취약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농림수산부문에 대한 개방폭 확대 요구를 통해 농산물 수출 증대와 한국의 취약산업 보호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은 농업부문을 전략적 협상분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② 일본의 고율관세 품목 위주 개방 요청 : 일본은 누진관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가공품의 관세가 높은 편이다. 한국의 잠재적 수출 규모도 가공품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곡물 가운데 관세율이 높고 수출 가능성이 큰 쌀의 시장개방 요청도 필요하다. 반면 이미 관세율이 0인 경우가 많은 화훼류를 비롯하여 미소세율을 나타내는 품목들에 대하여는 신축적으로 대응하면 될 것이다. 일본의 고율관세 품목은 대부분 종량세 부과 대상이며 이를 종가세로 환산하면 쌀 490%, 밀 210%, 보리 190%, 탈지분유 200%, 버터 330%, 전분 290%, 잡두 460%, 낙화생 500%, 곤약감자 990%, 생사 190%, 돼지고기 60% 등으로 추정된다(스즈키 노부히로 2004). 한국은 2002년 4월부터 일본의 GSP 적용 대상국에서 제외되어 일본 수출시 고율관세 적용품목이 증가하게 되었다. 일본은 가공단계가 높을수록 관세율이 높아지는 누진관세(tariff escalation)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원료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과 경합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일본의 가공식품 시장은 관세장벽이 높다.

③ 교역 실적이 많은 것 중심으로 양허 요청 : 일본과의 농산물 교역에 있어서 동식물 검역법 등에 의해 교역이 금지된 품목은 많지 않다. 교역이 부진한 품목은 주로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상관습 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품목들의 관세철폐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관세철폐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교역이 부진한 품목들에 대하여는 비관세장벽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협상 전략이 요구된다.

④ 비관세장벽 철폐 및 조화 : 한·일 FTA의 영향계측 결과

(KREI, KIEP, KIET 등)에 의하면 한국측이 관세 인하로 인하여 전체 경제에 대하여는 단기적으로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FTA에 투자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고, 비관세 장벽 철폐, 기준과 규격의 조화 등을 포함시킬 경우 장기적으로는 양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이 FTA 체결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관세 철폐보다는 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 철폐협상에 주력해야 함을 의미하며, 사전적으로 기반조성이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농업부문이 한·일 FTA로 농산물 수출 증대와 농가소득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비관세장벽을 철폐 또는 조화시키는 데에 협상력을 모을 필요가 있다. 일본은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동식물검역, 통관 등 비관세장벽 문제가 협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비관세 장벽 협상에 대비하여 잔존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을 분석하고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등 대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일본의 상관습(규격, 품질, 품종, 거래 관행 등)은 매우 폐쇄적으로 관세철폐로 FTA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따라서 비관세 장벽, 상관습 등에 대한 사전분석 및 조화작업 등 정지작업이 요구된다. 식품제조공전의 차이(예, 식품첨가제 허용기준 등) 등 한국의 기준과 일본의 기준이 상이한 경우가 많고, 규격 및 표시제도 또한 상이하다. 이러한 차이점은 국제적인 허용기준의 범위 내에서 양국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상할 필요가 있다.

수입과 관련된 일본의 강제적인 기술규정 관련 법률은 식품위생법, 식물방역법, 전기용품거래법 등 50여 가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품질을 표시하는 인증제도는 사실상의 강제표준

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민간이 운용하는 대표적인 인증제도로 일본공업규격(JIS)과 일본농업규격(JAS), S 마크, G 마크 등이 있다. 식료품과 임산물의 규격을 정하고 있는 농림규격・품질표시법(JAS법)은 1999년 의회에서 개정되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식품표시의 확충과 유기농산물 및 식품 검사・인증 제도를 창설하는 것과 신선야채 9품목에 대해 의무화 되어있는 원산지표시제도가 전품목으로 확대 된 것이다. 유기농산물과 쇠고기의 생산이력제를 JAS법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의 식품안전 및 소비자 관심사항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JAS는 농림산물에 대한 표시 및 규격화에 관한 법률(1950년)에 기초하고 있으며 JAS Standard System과 JAS Quality Labeling Standard System으로 구성되어 있다. JAS Standard는 JAS 규격을 통과한 품목에 대한 JAS 마크 사용에 관한 규정(자발적으로 마크 취득 신청 여부 결정)이며, Quality Labeling Standard는 모든 생산자와 무역업자가 그들의 판매 상품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하는 표시의 규격에 관한 규정이다.

JAS는 1950년 농림산물 규격화에 관한 법률로 시작되어 1970년에 품질표시 규격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면서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JAS 마크는 총 81개 품목(또는 품목류)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음료, 식품, 식용유 등이 60개 품목(예, 국수, 파스타, 간장, 식초, 마가린, 식용유, 잼, 통조림, 햄, 햄버거 등)으로 가장 많다. 신선 농산물 가운데 JAS 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것은 유기농산물과 쇠고기(생산이력제 적용 제품, 2003년 말에 도입되어 2004년 출하 제품부터는 부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등이다. 따라서 농산물 및 식품 관련 규격, 표시, 인증 등의 제도가 한・일 양국간 통일 또는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는 일본이 한국보다 까다로운 형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한국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

제도의 완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제도를 수용하여 발전의 토대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⑤ 농산물 수출 증대의 제약성 및 수입 증가 품목 고려 : 한·일 FTA 체결은 최근 수출이 많은 기존의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일본시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은 추가적 수출 증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돈육(1999년 시장점유율 13.4%)과 소주(알콜성 음료 시장의 4.3%), 국화(13.0%) 등 일본 수입 시장의 점유율이 낮은 품목은 수출 증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오이(100%), 가지(100%), 토마토(76.2%)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의 추가적인 수출 확대 가능성은 일본산과의 직접적인 경쟁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는 품질경쟁력 정도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밤, 송이버섯 등은 수출규모가 큰 품목이나 국내 수급 사정상 수출 증대가 제한될 전망이므로 관세나 비관세 장벽 철폐가 수출증대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현행 실행세율이 높은 품목인 베이커리 반죽, 감귤, 소주, 김치 등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시장조사와 협상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품목별로 국내 농산물과 일본산이 별개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분석하여 우리가 요구할 개방 폭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내산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품목들은 개방이 어렵다는 것이 일본의 기본적 입장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싱가포르나 멕시코와의 FTA 협상보다 농산물 시장개방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방어적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한국에 시장개방을 요청하고 수출 증대에 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본으로부터 수입 증대가 우려되는 품목과 종자 등을 둘러싼 지적재산권

문제 등에 보다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⑥ 차액관세 및 종량세 철폐 : 일본은 차액관세와 종량세 부과 품목이 많아 관세제도가 한국에 비해 투명성이 떨어진다. 차액관세제도 대상품목으로는 돈육이 있다. 수입 돼지고기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가 냉동, 냉장육 및 부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기준가격을 설정하여 이 기준가격과의 차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돈육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국내 수요가 제한되어 있는 후지 및 전지는 낮은 가격을 형성하게 되는데 일본의 돈육 관련 관세제도는 이러한 부위의 대일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돼지고기에 대한 차액관세 철폐 문제는 일본이 멕시코와의 협상에서도 쟁점으로 등장한 부분이다. 또한 EU의 경우 일부 복합세 부과 품목에 있어서 종량세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일본이 많은 중요한 농산물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종량세도 종가세와 같이 철폐되도록 협상하여야 할 것이다.

⑦ 잠재교역 규모가 큰 가공식품 양허 요청 : 가공식품의 잠재수출 규모가 신선 농산물보다 클 것으로 전망되며 식품산업 발전은 한국 농업의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공식품 관련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위한 양허 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식품산업 가운데 수출확대 예상품목을 살펴보면, 1차 가공식품인 제분, 제당, 제유, 전분 등은 일본의 소재산업에 비해 매우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소재산업은 밀, 옥수수, 대두, 사탕수수당 등 대부분의 원료관세율이 1% 수준이고 원료조달도 생산자가 직접 수입하면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구매부담이 없는 반면 일본

은 자국 농민 보호 차원에서 국산 농산물에 대한 구매부담이 있어 가격경쟁력이 취약하다. 수출확대가 예상되는 2차 가공식품은 김치 등 한국의 전통식품과 양념류 등 조미식품, 탄산음료, 과즙음료, 라면(건면), 스넥과자, 사탕과자, 소주, 조제식료품 등이다. 일본의 경우 가공식품에 대한 관세율이 높고 한국과는 매우 상이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의 일치나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대일 수출 확대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폴리솔베이트(Polysorbate) 등 일부 식품첨가물의 사용 기준이 양국간 상이한 점, 일본 대형 유통업체의 자체적인 기준에 의한 보존료 및 합성착색료 사용 금지 등 가공식품에 대한 제조공정, 표시, 규격 및 기준, 상관습 등과 관련하여 양국간 기준의 조화, 수정 등이 요구된다. 가공식품의 원료에 대한 분류 및 HS 품목 합치 여부 확인에 있어서는 일본 세관의 성분분석 방법 및 결과의 공개가 필요가 있다. 식품검역과 관련하여 소요기간 및 일정 등 절차와 결과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통보 방식 등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⑧ 수입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양허 신중: 한・일 FTA는 한국 농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일부 품목은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예를 들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담배의 경우 한국의 관세율이 높아 FTA로 인한 수입증가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녹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녹차 산업을 비교하면 일본의 경쟁력이 높다. 따라서 한・일 FTA로 인한 녹차와 녹차제품 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일본은 북해도 지방을 중심으로 한국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낙농업을 경영하고 있다. 따라서 낙농품도 수입 증가가 우려되는 분야이다.

캔디류와 같이 중소업체의 시장 점유율(30%)이 높은 품목류의 경우 지금까지 이들의 영업 전략은 소량 다품목 위주로 일본 등 선진국의 상품과 비슷한 제품을 모방·개발하여 할인점이나 편의점 등에 청소년층을 겨냥하여 대기업의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캐릭터 등 브랜드가 우수한 일본 제품이 수입되면 중소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 2차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냉동식품(면, 만두 등), 장류(간장 등), 소스, 조미료, 식품첨가물 및 향신료, 녹차음료, 기능성 식품 등에 있어서 일본이 우수한 품질과 가공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우려된다.

참 고 문 헌

김도형, 유관영 외. 1999.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 전략」.

김종태, 2000, "우리나라 차 산업의 현황과 전망", 한국차문화협회지, 5-6월호.

김태곤・정정길. 1999.「동북아 농업협력 확대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최세균. 2001. "일본의 농산물 수급변화와 대일 수출전망" 「농업전망 20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문호, 2003, "우리나라 녹차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농촌경제연구」, 제26권 제1호..

박용구, 2003,「녹차 관세할당(TRQ)제도에 따른 한국 차 산업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구상: 평가와 전망", 한일공동심포지움 자료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경제연구소. 2000.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구상: 평가와 전망", 한일공동심포지움 자료.

이계임, 김민정, 「쌀 소비행태분석」, 연구보고 R45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12.

이정환, 1998, 「농업의 구조전환 그 시작과 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총서 21.

어명근, 최세균 외. 2003. 「동북아 농업구조와 역내 농산물 교역구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467.

전남농업기술원, 2004,「한국차산업 현황과 발전방안」.

정훈・이홍배. 1998. "한・일 주요 통상현안과 대응 과제", 대외정책연구원, 자료논문 98-01.

최세균・김태곤. 2001.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2001-25.

최세균・임송수 외. 2002. 「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 비교 및 관세 감축 효과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2001-25.

최세균・어명근 외. 2002.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농업분야 대응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2002-38.

최세균・어명근 외. 2003. WTO 「농업협상과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대응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2003-09.

스즈키 노부히로. 2004. “일・한 FTA 구상의 평가와 일본의 대응”, 「일・한 양국의 WTO/FTA 전략과 농산물무역 문제」, 일본경제학회・한국농업경제학회 공동심포지움.

한국 관세청, 2003, 「해외무역통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 연도.

Choi, Hyoung-Kook, 2000, Tea Breeding and Cultivation in Korea, J. Korean Tea Society, Vol.6, No.2.

OECD. 1999. 「Post-Uruguay Round Tariff Regimes Achievements and Outlook」.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각 연도.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각 연도.

농림부, 「양정자료」, 각 연도.

농림부, 「특용작물재배실적」, 각 연도.

일본 농림수산성, 「食料需給表」,각 연도.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통계」, 각 연도.

일본 농림수산성, 「경지 및 식부면적통계」, 2002.

일본 농림수산성 統計情報部,「畜産統計」각 연도.

일본 농림수산성, 「農業物価指數の農産物品目別価格指數」, 각 연도

일본 농림수산성, 「食料モニター定期調査結果」, 각 연도.

일본 농림수산성, 「茶統計年報」 및 財務省, 「通關統計」, 각 연도.

일본 농림어업금융공고,「食品の輸入に關するアンケート調査」, 2004.
일본 식량청, 「外食事業者アンケート調査」, 2003. 6.
일본 財団法人全國米穀取引·価格形成センター의 입찰결과 자료.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각 연도.
일본 (사)차엽중앙회, 「緑茶關係資料」, 각 연도.
일본 차엽중앙회, 2004,「緑茶消費」.
일본 총무청, 2004, 「小賣物価統計調査年報」.
冬木勝仁, 2003,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下のコメビジネス", 日本経済評論社, p206-214.
藥師寺哲郎, "米の業務用需要の動向と今後の見通し", 「農業總合研究」, 第52卷 第3号, 農業總合研究所、
增田佳助, 1986, "茶の経済分析", 農林統計協會..
寺本增英, 1999,「戰前期日本茶業史研究」, 有斐閣, p114ー130.

연구보고 R

등 록 제호()
인 쇄 2005. .
발 행 2005. .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전화 02-2242-7120 E-mail:DONGYP@Chollian.Net

ISBN
ISBN (세트)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